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학의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 연구

-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송 연 민

미학의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 연구

-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

최 배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송 연 민

인 준 서

송연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우리가 전통성이나 한국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이다.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한 국가의 민족성에 일정 주기와 고유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민족 내부에 축적된 문화적 DNA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오는 동안 미에 대한 동질적 감성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미의식이다. 한민족이 지속적으로 살아온 영토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리와 화합을 거듭하는 동안 다양한 사상들이 발전하고 미의식 또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그러나 강제적 변화를 요구 받았던 일제강점기와 서양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편리성에 대한 욕구는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미적 흐름의 일부를 단절시켜 한국의 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로 보면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한국의 미를 정립하고 발굴해나가야 할 때이다. 미의식은 타 문화가 수용되더라도 우리만의 미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구심점이 된다. 미의식은 미를 대하는 의식체계로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경우를 말하며 사물과 현상을 접하는 무의식 안에 미에 대한 선택적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는 정신과 물질을 통해 생성되는데 이는 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차는 물질을 통해 정신을 논하는 매체(媒體)라고 표현된다. 차의 생물학적 특성을 통한 유물론적 입장과 차사(茶事)라는 행위를 통한 관념론적 현상을 통해 정신문화적 가치가 생성된다. 차를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을 종합하여 차문화라고 할 때 그 문화 안에는 정신과 물질의 개념이 녹아있으며

차라고 하는 영역이 가미되면서 기폭의 역할을 한다.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인 일정한 틀, 즉 공간이 있어야 하며 차사를 종합하는 공간이 바로 차문화 공간이다.

본 논문은 미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차문화 공간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심성에 남아있는 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학문적 체계로 엮는 미학 연구를 전개하였다. 추상적이며 개별적인 미를 민족적 범위에서 객관적이고 범용(汎用)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음악, 문학 등 한국인의 미 또는 예술적 개념이 적용된 분야를 망라하여 한국 미학으로 도출할 때 필요한 분야의 하나가 차문화 공간의 미학 연구임을 역설하였다. 차문화 공간은 차를 주축으로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음악, 문학 등이 유기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미학이라는 학문의 도입 배경과 미학의 정의, 시사성과 목적성에 대해 기술했다.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인만큼 서양 미학에서 미를 보는 사고형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 이어서 동양 미학에서의 미의 관점을 파악한 후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확인했다. 또한 서양과 동양 미학의 비교를 통해 집단별 고유한 미적 범주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의한 미적 배경과 요소를 파악해 집단별 미적 특성은 서양미학의 진·선·미, 동양 미학의 불·유·도의 가치체계의 사유형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미를 보는 관점의 유사성은 인간 공통의 심리적 요인으로 서양 미학, 동양 미학과 함께 한국 미학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밝혔다.

둘째,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분석으로 미적 특성의 구체적 제시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적 특성은 미적 배경, 미적 요소, 미적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미적 배경으로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를 살펴보고 미적 요소로 건축적, 철학적, 관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먼저 건축적 요소

에 있어 차문화 공간에 대한 범위를 밝혀 독립건물의 공간으로 다옥,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으로 다실, 일상영역 내 공용공간의 세 가지를 구분하였다. 철학적 요소로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이를 실천하는 선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적으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문화적 결합과정을 접화와 조화의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차문화 공간의 미학 사례로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적 특성을 자연 환경-건축적, 인문 사상-철학적, 사회 문화-관계적이라는 연결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종합하는 미적 명제로 공(空)·인(人)·기(氣)를 제시하였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은 한민족에게 축적된 미의 공유인 미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의 미적 특성을 통해 한국 미학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차문화가 존재해왔기 때문이며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노력은 미학의 학술적,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차 관련 기록물이 주는 영향력과 시사성을 통해 전통의 전승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미학의 정립에 있어 연구 분야별 결과가 도출되는 초석으로 기초 자료의 역할에 의미를 두었다. 앞으로 차문화 공간의 미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3
2) 분석 과정 및 방법	8
II. 미학의 개념과 전개	11
1. 미학의 개념	11
2. 미학의 전개	13
1) 서양 미학	13
2) 동양 미학	17
3) 한국 미학	23
III.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적 관점	28
1. 차문화 공간의 미적 배경과 범주	28
1) 자연 환경	29
2) 인문 사상	37
3) 사회 문화	40
2. 차문화 공간의 미적 요소	44
1) 건축적 요소	46
2) 철학적 요소	69

3) 관계적 요소	79
IV. 다산초당 사례를 중심으로 본 차문화 공간의 미학	91
1. 자연 환경과 건축적 요소로 본 ‘공(空)’	91
2. 인문 사상과 철학적 요소로 본 ‘인(人)’	100
3. 사회 문화와 관계적 요소로 본 ‘기(氣)’	104
V. 결론 및 제언	11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서양 미학의 진·선·미 가치체계	14
<표 2>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의 비교	27
<표 3> 조선시대 전문 다서	36
<표 4> 차문화 공간의 분석을 위한 구성 틀	44
<표 5> 조선시대 다화에 나타난 차문화 공간의 지붕형태	49
<표 6>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범위	56
<표 7> 문헌자료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의 명칭	57
<표 8> 주거 건축물의 용례	61
<표 9> 『부풍향다보』 증상과 약재에 대한 『동의보감』의 효능	85
<표 10> 문헌자료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 내 취미활동	88
<표 11>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	90
<표 12> 문헌자료를 통해 본 정약용의 건축적 견해	96
<표 13> 차문화 공간 사의재에 나타난 구용구사	102
<표 14> 육우의 떡차 제도법과 정약용의 떡차 제도법의 비교	105
<표 15> 다산초당 내 취미활동의 오감적 조화	109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과정	10
<그림 2> 지형의 특성	30
<그림 3> 고성리 산성 성벽	32
<그림 4> 도동서원 중정단 기단 석축	32
<그림 5> 무성서원 강당	33
<그림 6> 식영정 대청	33
<그림 7> 창외 종류	34
<그림 8>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분석체계	45
<그림 9> 해인사 궁현당 지붕	47
<그림 10> 경복궁 근정전	47
<그림 11> 윤증 고택 기단	51
<그림 12> 이인문의 <누각아집도> 기단	51
<그림 13> 창외 드리워진 휘장	53
<그림 14> 책거리	64
<그림 15> 누, 정자, 누마루의 비교	69
<그림 16> 초의의 <다산초당도>	93
<그림 17> 김영환의 <다산초당 외원도>	9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에른스트 고프리치(1909~2001)에 따르면 인간은 사물을 지각할 때 눈만을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념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 이미 ‘지(知)의 도식(圖式)’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시지각(視知覺)자체가 개념적 사유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¹⁾ 태고의 순수한 자연을 관찰할 때 발생한 미(美)의 개념이 인간의 심상에 자리하여 예술이라는 기호(記號)로 표출되면 이를 미와 예술에 대해 연구하는 미학(美學)의 본질로 설명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은 철학자들의 과제가 되어왔으며 미 개념의 철학적 정식화는 피타고라스(B.C.580~B.C.500)학파에 의해 처음으로 수행되었다.²⁾ 이들은 아름다움으로 해석되는 미의 객관적 성격을 찾기 위한 탐구는 인간의 내면에 귀착(歸着)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이렇듯 미학은 정식 학문이 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중반에 서양에서 학문의 체계를 갖춘 미학은 미와 예술의 연구를 통해 국가적,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사유를 정립해왔으며 그를 종합한 형상은 ‘문화’로 나타났다. 즉 미학은 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원래 문화라는 단어인 ‘culture’는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한 것으로 경작이나 재배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 자연과 함께 생산해내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한다.³⁾ 또한 한자로 ‘문화(文化)’라고 표기할 때 ‘文’은 무늬를 뜻하는 ‘紋’으로도 사용하는데 고대로부터 무늬는 인간의 정신적 표현을 미적

1)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휴머니스트, 2004, p.28.

2)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3.

3)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4, p.13.

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미의 본질과 그를 표현하는 예술을 논하는 과정을 보면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도출하는 것이 미학의 역할이 된다. 전(全)시대의 문화적 소산은 한 국가에 존속(存續)하여 현재의 삶에 반응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대의 문화적 소산이 축적되어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때 전통성으로 발현되어 국가별로 다양한 미학을 창조하게 된다. 국문학자이자 시인인 조지훈(1920~1968)은 “전통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살아 있는 과거이지만 그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 미학에 대한 논의는 전통문화 안에 적용된 미와 예술에 근거하여 현실에서도 적용되며 미래의 정신문화적 가치구조에 투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전통문화로부터 미학의 근거를 제공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한국 미학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의 잣대로 한국의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자주적인 한국미에 대한 근거와 당위를 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한 미와 예술의 분석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 분야의 토대 안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 담긴 한국인의 미에 대한 개념을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고찰하려 한다. 보편성이란 어떠한 배경을 통해 발휘되는 미가 인류의 무의식에 의한 심리적 현상과 관계됨을 비교문화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문화란 다양한 집단에 존재하는 사회적 행위의 의미와 패턴을 찾아내어 인간 행위의 다양성과 본질적 유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⁵⁾ 특수성은 미적 특성을 통해 한국만의 고유한 미적 범주를 발굴하는 것을 말하며 보편성과 함께 한국 미학 정립에 기여하게 된다.

미학의 관점에서 차문화 공간을 연구하는 본 논문의 목적은 일상다반사

4) 이해미, 조지훈 시에 나타난 선(線)의 미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4.

5) 권효숙,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http://www.hakjisa.co.kr>.

(日常茶飯事)로 일컬어질 만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차사(茶事)를 다루는 공간의 고찰을 통해 일상영역 내에 존재하는 미적 특성을 밝혀내는 데 있다. 이는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개념적 사유를 공유하여 한국 미학의 관점에서 차문화 공간의 특성으로 미적 배경, 범주,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적 명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의 차문화, 공간, 차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기로 한다.

1단계, 차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건우(2006)는 차문화가 최근에 다른 문화적 영역을 흡수하면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영역과 범위가 방대해지고 있어 이러한 모든 문화적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로 차문화를 정의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틀어 ‘차문화학(茶文化學)’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형식적 분류로는 차생활, 다회, 다례, 다예, 다도를 언급하였다.⁶⁾ 김완주(2008)는 기호로서의 차는 정신적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 안에 발생하는 경지로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차문화로 정의를 요하며 차문화는 복합적인 문화로서 도구문화, 규범문화, 관념문화를 아우르고 차문화의 총족조건으로는 차, 차제구(茶諸具), 사람 [차인층(茶人層)]을 제시하였다.⁷⁾ 이경희(2008)는 차문화를 차를

6) 김건우,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6-13.

7) 김완주, 차문화가 동아시아인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

이용하면서 발현되는 정신적, 기술적, 물질적인 세 가지 현상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의 정신적 현상으로 차생활, 차의례, 다례, 다도 등을, 두 번째 기술적 현상으로는 차재배, 행다법, 음다법 등을, 세 번째 물질적 현상으로는 차의 종류, 다식, 다구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세 가지 현상을 역할적으로 분류하면 정신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차문화의 연구 경향을 정신적, 서지적, 물질적, 의료적 분야로 개괄하고 해당 논문 및 자료에 대해 기술하였다⁸⁾. 이정옥(2013)은 일반 대중에게 차문화는 차와 연관된 문화로 인식되어진다고 판단하고 ‘차+문화’로 해석했다. 차를 우리고 마시는 모든 행위와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조선시대 차문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유학자들의 문집 목록을 자료화 하였고 선행연구 고찰로 조선시대 차문화 쇠퇴에 관련된 내용 분석과 다인 및 차문화를 행한 이들의 신분 구별 그리고 문화적 연구를 목록화 하였다.⁹⁾ 정재숙(2006)은 각 나라의 정서와 미의식이 배어있으며 시대적 사상과 종교적 진리가 담겨있는 것이 그 나라의 차문화로 차와 관련되는 사상과 예술, 필요한 여러 도구들의 형성 등 정신적 내용과 물질적 형식이 통합되어 나타난 고도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차문화는 우리 민족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전통문화의 정수이며 정신문화의 대표적 유산이라고 했다.¹⁰⁾ 이를 종합하면 대부분 차문화에 대한 문화사적 의미에 집중하고 있으며 물질과 정신적 영역이 존재함을 공감하고 있다. 단, 이를 표현하는 문화 활동에 대해 연구자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2단계,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숙(1996)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1-12.

8) 이경희, 한국 차문화 전승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1.

9) 이정옥,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본 차문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1-10.

10) 정재숙, 韓國茶文化의 美學的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4-6.

공간이란 인간 생활의 용어로 방향, 거리, 길이의 측정수단 또는 인간 활동 장소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체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을 가리키는 폐쇄된 형태의 빈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결국 공간은 인간 관습적인 행위의 일부분인 언어행위 이외의 의미로서 ‘인간생활의 터’를 의미하며, 공간이라는 것은 유무보다는 인간에게 인식되어 활용되는 것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정의했다.¹¹⁾ 노은주(2003)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칸,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단어 등의 공간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면서 이 개념은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고 했다. 심리학적으로는 공간지각에 입각한 공간표상으로 이해되며 철학적으로는 경험적 공간, 선형적 공간과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동서양의 공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동양 노자의 비존재의 유용성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서양 플라톤의 공간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한 유클리드 기하학의 도입,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장소의 총화로써 해석을 비교하였다.¹²⁾ 연태경(2003)은 공간은 그를 둘러싼 기둥 혹은 벽체와 지붕, 그리고 바닥으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간 자체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 특정 주체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상호성에 의해 생명력이 부여되고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았다.¹³⁾ 정수미(2012)는 공간이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 개념으로 상하, 전후, 좌우 3방향으로 펼쳐 있는 빈 곳을 말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공간은 정치적 공간, 도시 공간, 가상 공간, 신체 공간, 의사 공간, 영화적 공간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11) 김경숙,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5.

12) 노은주, 현대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22-23.

13) 연태경, 관계성 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특성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

공간의 개념을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을 규정하는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논했다. 그리고 공간개념의 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로 공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목록화 하였다.¹⁴⁾ 이상에서 공간의 물리적 규정에 따른 정의를 중심으로 볼 때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활동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종합될 수 있다.

3단계, 차문화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송지숙(2017)은 좁은 의미로 음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내외 공간이며 넓은 의미로는 차생활을 영위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고 했다.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종교, 도덕, 사상, 예술 등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칭하기도 했으며 자연요소에 의한 자연적 실외공간과 건축적 요소로 인한 인공적 실내공간을 조합하고 가변적 공간인 생태계와 허실상생(虛實相生) 하는 철학적 공간으로도 해석했다.¹⁵⁾ 이주영(2017)은 기존의 차문화 공간 연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차문화 공간은 차를 마시는 공간의 한정된 범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적 공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¹⁶⁾ 이은경(2017)은 차문화 공간은 종합예술의 집약으로 생활철학의 바탕이 되는 도덕, 종교, 예술과 같은 정신의 문화적 가치가 적용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⁷⁾ 이로 보면 차문화 공간은 차문화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함께 공간의 상징성이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정수미, 공간개념 변화 분석을 통한 공간디자인 방향성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5-10.

15) 송지숙, 동서양의 정원문화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25-26.

16) 이주영, 현대 차문화 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4-6.

17) 이은경, 차문화 공간의 현대적 적용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5-6.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차문화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차문화에 있어 차는 물질과 정신으로 분리가능하고 문화 또한 물질과 정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분리의 방향성을 달리하면 이를 혼합한 차문화에서는 ‘차’를 물질체계 보고 ‘문화’를 정신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차는 자연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문화는 예술미의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자연 환경적 관점으로 보는 차의 영역이 인간의 심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인문 사상적 연상을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 표현되는 예술성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차라는 순수한 본질을 통해 문화라는 인간의 창조영역으로 진화하기 위해 해당 영역이 종합될 때 이 과정에서 미적 특성이 적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차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문화적 의견에 동의하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미적 실체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다. 이때 미의 의미는 단순히 ‘아름답다’의 의미로써 추(醜)의 대비 개념이 아니다. 행동과 내면의 협치(協治)로 인해 발생하는 보편타당한 감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간에 대해서는 협의적 개념으로 한정짓고 그것을 건축적 외형으로 단락한다. 건축적 외형이라 함은 공간(空間)의 의미 중 ‘비어 있다’는 언어적 추상성을 포함하는 장소가 아닌 벽, 바닥, 천정 등 인간에 의해 인위적인 설치물로 한계가 지어지는 실존하는 장소를 뜻한다. 공간이라는 것은 사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 규정함을 의미한다. 1단계인 차문화의 정의 안에 자연을 통한 창조영역이라는 유동성을 포괄하고 있기에 그것을 담아내는 공간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어야 실체를 가시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차문화 공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 환경이다. 의도적 관여가 아닌 반사(反射)적으로 인간의 삶에 이입되는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인문 사상

은 활동주체의 철학적 사유를 도모하게 한다. 또한 시기마다의 시대적 특수성이 적용되어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발현되며 이를 통해 관계적 요소가 생성된다. 정리하면 인간의 삶의 영역에 관여하는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차와 관계하며 발생하는 요소가 반영된 벽, 바닥, 천정 등 구조적 실체를 띤 건축적 공간을 차문화 공간으로 정의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약용(1762-1836)이 기거한 다산초당의 존재 시기인 조선시대라는 시대성, 거시적 관점의 차문화, 미시적 범위의 공간을 설정하여 미학의 관점으로 차문화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과정 및 방법

본 논문은 미학의 관점에서 차문화 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의 기록물로 남아 있는 자료와 오늘날까지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한 기록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문헌자료로는 문집 안의 시나 문장 중 차에 대한 표현을 분석하고, 회화자료에서는 차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그림을 분석한다. 또한 현재까지 실체가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의 사진자료를 통해 차문화 공간에 대한 분석을 이행한다. 분석 과정은 문헌자료, 회화자료,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차문화 공간의 구체성을 나타내도록 재배열하여 종합 분석을 통한 연구의 상호보완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방법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제1장 서론에서는 미학의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이때 차문화 공간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밝힌 차문화, 공간, 차문화 공간으로 점증하여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의 차문화 공간에 대한 정의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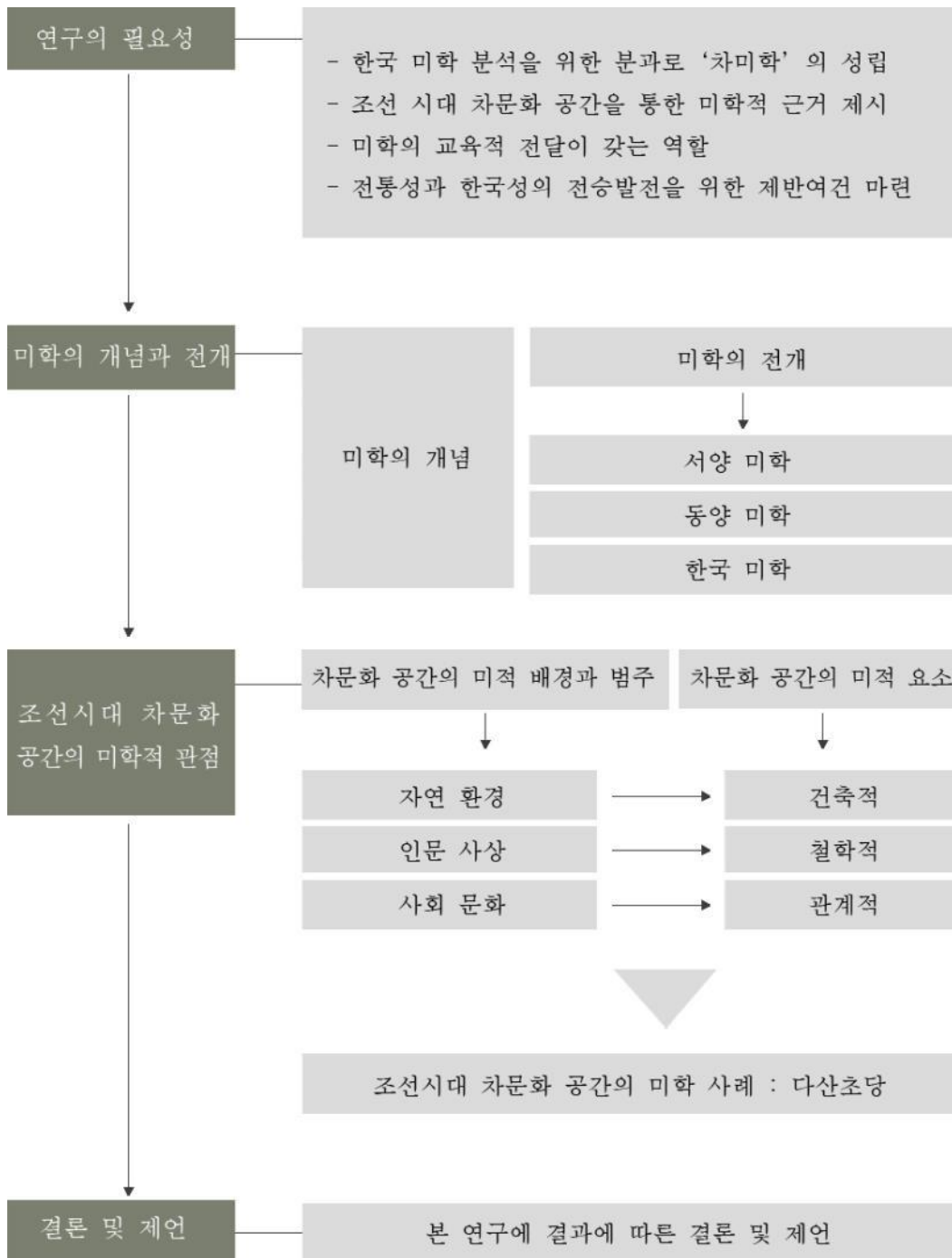
제2장 미학의 개념과 전개에서는 미학의 학문으로의 도입을 살펴보기 위

해 서양의 미나 예술을 바라본 방식을 기본으로 서양 미학의 내용을 정리한다. 동양 또한 사상 안에 존재하는 미의 위상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동양 미학의 내용으로 제시한다. 뒤이어 동양 문화권 안에 속한 한국 미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처음 미학이 소개된 과정을 알아보고 한국 미학의 전개에 대해 고찰한다.

제3장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적 관점에서는 한국인에게 적용된 차문화 공간의 미적 배경과 범주를 밝혀내고 그것이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문헌, 회화, 사진 자료에 의한 분석을 거쳐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 미학의 배경을 바탕으로 발생한 미적 요소와 미적 범주를 규명한 후 이를 종합하는 미적 명제를 도출한다.

제4장 다산초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차문화 공간의 미학에서는 현재에도 사료(史料)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다산초당의 사례를 통해 3장의 분석내용인 차문화 공간의 미적 배경, 요소, 범주, 명제의 재검토를 진행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한국 미학의 전통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한국 미학 안에 자리매김 해야 함을 밝힌다. 미학 연구는 미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전달 기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의 차문화가 전통문화로서 전승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제의(提議)한다.



<그림 1> 연구의 과정

Ⅱ. 미학의 개념과 전개

1. 미학의 개념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한 진리의 추구를 추종하던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는 가치부여를 설정하는 과정에 미학이 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B.C.427~B.C.347)은 다양하면서도 천차만별인 사물의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본질을 밝히려는 과정을 통해 미의 본질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미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였다.¹⁸⁾ 동양 또한 상고 시대부터 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학문으로 형성하는 관점과 시기는 서양과 차이가 있었다. 동·서양이 미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집단적 무의식은 동질적이나 내용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이질적이기에 문화의 다양성이 형성되게 된다.

미학이란 미 또는 예술이나 감성적 인식을 주제로 하는 철학적인 학과(學科)이다. 철학은 원리적, 본질적인 상(相)을 지향하는 학문을 가리키고, 학과라고 함은 분절된 문제 체계를 가진 학문 분야를 의미한다.¹⁹⁾ 미학은 예술적 활동에 대한 정의 또한 동반한다. 미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술이라고 지칭할 때 예술적인 가치를 창조, 창작하는 인간의 활동 결과를 통해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미학은 미와 예술의 이해를 통해 인간이 주위 세계를 미적으로 습득하는 보편적인 법칙 및 예술 문화의 구조나 발전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미학을 보는

18)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2015, pp.26-27.

19) 사사키 켄이치, 미학사전, 동문선, 2002, p.27.

시선은 미와 예술의 갈래에서 개별과 전체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라는 가치개념에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는 미에 대한 논의 후에 예술적인 창작영역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은 18세기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미를 직관하는 인간의 능력이 교육을 통해 향상된다고 보았다.²⁰⁾ 이는 미나 예술의 학문적 연구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거하면 미학의 시사성과 목적성은 미와 예술에 대한 탐구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적 교육의 이론을 형성하고 현실적 실현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고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게 된다.

미학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중엽 독일의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이 자신의 저서인 『미학(Aesthetic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가 사용한 단어는 감각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isthēsis를 어간으로 하며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감성학이다.²¹⁾ 그가 명칭한 미학은 철학에 미를 적용하는, 즉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 분석이 가능한 이론이다. 이것은 독일의 합리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Leibniz, Gottfried Wilhelm: 1646~1716)의 이론인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성(理性), 감성(感性), 의지(意志)라는 세 분야로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 독자적인 철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다. 이성의 영역인 논리학과 의지의 영역인 윤리학은 독자적인데 반해 감성의 영역은 학문으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스스로 연구하여 이 새로운 분야를 Aesthetica라 불렀다.²²⁾ 바움가르텐으로부터 시작된 미학은 이후 체계적이며 다양한 용어들을 생성해내게 되었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에 이르러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

20)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2013, pp.11-24.

21) 사사키 켄이치, 앞의 책, p.27.

22) 강대석, 위의 책, p.12

다. 칸트는 판단력을 통해 진리와 도덕의 영역에서 미를 독립시키려 하였고 미는 진위(眞僞)의 문제가 아니라 쾌(快)와 불쾌(不快)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나 예술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나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18세기가 되어서야 자리 잡으면서 근대 미학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 미학은 합리주의에 근거한 과학적 성과에 급급하여 다양한 미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서양의 근대 미학의 영향력은 막강하였으나 동양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하지 못했다. 해당 국가의 문화 현상들을 획일하게 분석하려 했으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학이 아닌 서양 특유의 고유체계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²³⁾ 동양의 경우 문화 중추를 관장하던 중국의 문화가 신해혁명(1911)을 기점으로 서양의 문화와 대규모로 충돌하여 융합되었기에 동양만의 고유한 문화의 개성이 약해지고 서양과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²⁴⁾

근대 미학을 지나 지금의 현대 미학은 동·서양의 미나 예술에 대한 기존의 한계 및 오류를 수정하고 각 국가마다의 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미학의 출발이 서양임을 인정하되 비교 문화로서 동양 미학의 근거를 찾아낸 후 동양 안에 한국 미학을 제시하여야만 진정한 보편적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 미학의 전개

1) 서양 미학

서양의 가치체계인 진(眞/truth)·선(善/goodness)·미(美/beauty)는 영역, 주관, 현상, 학문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23) 최광진, 한국 미학, 미술문화, 2015, p.14.

24) 장파, 앞의 책, p.31.

<표 1> 서양 미학의 진·선·미 가치체계 *

분류	진 (眞/truth)	선 (善/goodness)	미 (美/beauty)
영역	이론	행위	제작
주관	이성	의지	감성
현상	학문	도덕	예술
학문	논리학	윤리학	미학

* 출처 : W.타타르키비츠(2017)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

진·선·미는 서양의 가치체계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사유형식으로서 학문으로 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에서 시작되었으며 칸트는 이를 이론(theory), 행위(action), 제작(creativity)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의 심리적 삼분법이기도 하며 라이프니츠의 이론인 이성, 감성, 의지라는 세 분야의 분리로 연장되기도 한다. 이성은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진리 탐구 영역인 논리학이 되었고 의지는 선한 행위를 중심으로 도덕적 실천 영역의 윤리학으로 발전하였다. 감성은 자연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술적 제작 활동 영역이 되어 미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²⁵⁾ 결국 인간의 삶의 해석의 보편성은 심신(心身)의 결합, 즉 이성과 의지를 중심으로 감성적 취사(取士)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논리학과 윤리학의 개념 안에서 두 학문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학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상술하였듯이 미학에서는 미와 예술에 대한 논의가 기본명제이다. 그 중 미를 연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된다. 그것은 자연미와 예술미이다. 자연미는 자연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물의 모양, 색깔, 특성, 재질 등 미적 특성을 통해 미를 논하는 구조이다. 그에 반에 예술미는

25) W.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2017, pp.13-14.

자연의 모방에서 시작하여 예술 안으로 고차원적인 정신의 의미를 적용하여 발전하는 미, 즉 이상화된 모방의 미이다. 따라서 미학은 자발적 자연미와 인간의 제작에 의한 예술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어권에서 미를 표현한 단어로 명사 ‘뷰티(beauty)’와 형용사 ‘뷰티풀(beautiful)’이 있다.²⁶⁾ 동일한 어원에서 품사를 달리하며 사용하는 예로 이것은 서양의 분석적 특징인 근원적 자연미와 그것을 ~처럼, ~적인, ~한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자연의 모방을 근거한 예술미를 언어에서부터 분리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미학에서 현대 미학에 이르기까지 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 미학의 역사를 아울러 설명되고 있다. W. 타타르키비츠는 미의 범주를 10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적합성, 장식, 매력미, 우미(優美), 정묘(精妙), 숭고, 이원적인 미, 질서와 양식, 고전적인 미, 낭만적인 미로 일컬었다.²⁷⁾ 장파는 화해미, 비극미, 숭고미, 부조리와 소요, 문(文)과 형(形), 전형과 의경(意境) 등으로 미를 분류했다.²⁸⁾ 이주영은 서양에서 말하는 미에 대한 범주를 총 6개로 나누어 순수미, 특성미, 비극미, 희극미, 우아미, 숭고미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비슷한 맥락으로 서양의 미에 대해 정리했는데 각자가 사용한 단어들은 전달성을 높이고자 택한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영의 분류에 의거해 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연상 되는 순수미, 특성미, 비극미, 희극미, 우아미, 숭고미를 채택하여 정리하려 한다.

6가지 미의 구분 중 첫 번째는 순수미이다. 순수미는 명명대로 가장 순수하게 구현된 좁은 의미의 미로서 본래미, 이상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상의 감각적 형식이 유기적 종합을 통해 생겨나는 본래의 미를 말하는 것으로 가

26) W.타타르키비츠, 위의 책, p.156

27) W.타타르키비츠, 앞의 책, pp.191-229.

28) 장파, 앞의 책, pp.119-337.

시성을 띤 탐구적 역할의 미이다. W.타타르키비츠의 매력미나 장파의 화해 미도 이 범위에 포함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특성미이다. 특성미는 현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으로만 충분하지 않는 독창적인 예술가의 개성적, 정신적 미를 뜻하며 참된 것을 파악하는 만족감에서 오는 미를 뜻한다. 세 번째는 비극미이다. 비극미는 어떠한 가치가 부정적 계기에 의해 침해되고 멸망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고뇌가 생겨날 때 그로 인해 도리어 가치 있는 감정이 한층 강화되고 고양되는 특수한 미를 칭한다. 이것은 희극미와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장파 역시 비극미를 논했다. 네 번째는 희극미이다. 비극미와 대립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송고의 대립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희극미는 진지한 것에 대한 중압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또한 추구하던 가치의 상실에 대한 공허함을 체험하므로 유쾌한 놀라움이 수반되며 주체의 관조적이고 유희적인 태도에 의해 미적 쾌감의 행위적 양상이 드러난다. 다섯 번째는 우아미이다. 우아미는 감성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총체적 미를 의미한다. W.타타르키비츠는 우아미가 규칙 없이 즐거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우아미를 순수미와 유사하게 보기도 한다. 여섯 번째는 송고미이다. 미의 개념 중에 송고미가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송고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견해는 칸트에 의해서였다. 칸트는 자연의 미는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송고는 인간의 내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연을 송고미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신의 위대함에 대한 내면적 인식이 처음 등장하게 된 미의 정의이다.²⁹⁾

열거한 순수미, 특성미, 비극미, 희극미, 우아미, 송고미는 진·선·미에 녹아져 있으므로 미를 단순히 아름다움을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

29) 이주영, 미학특강, 미술문화, 2011, pp.47-63.

치를 이해하는 표상으로 본 것이다. 이들 6가지 미를 진·선·미로 정리해 보면 진(眞)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발전한 학문의 과정이기에 정신적, 탐구적으로 이론화된 특징을 지니며 형상(形象)으로 드러나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미를 보는 관점을 본연으로 볼 것인가 정신적으로 볼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으로 순수미와 특성미가 이에 속한다. 선(善)은 인간의 의지를 통해 발전한 체계로서 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적 특징으로서 인문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미를 행동하는 영역으로 보는 것으로 미에 대한 인간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비극미, 희극미가 이에 속한다. 미(美)는 인간의 감성을 통해 발전한 체계로서 진과 선을 결합하여 총체적, 내면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영역이다. 미는 형상을 통해 감각하는 인간의 사회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사회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아미와 숭고미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개별적 삶에서 일반화된 이론을 형성하려는 과정에는 구조적 체계가 필요했다.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진·선·미를 통해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가치는 발전하여 독립적인 학문이 되었다. 이때 세상만물을 해석하는 이론과 실천적 행위가 인간 내면에 작용하여 감성이 발현된 것이다. 결국 미(美)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선·미를 종합할 수 있는 미학이라는 학문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선·미는 서양 미학의 핵심이자 가치체계이다.

2) 동양 미학

동양 미학이라고 말하는 개념 안에는 중국이라는 시·공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고대 중국의 사상인 유가나 도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 전해지고 인도의 불교문화 또한 중국에 전해진 후 재정

립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때문에 동양 미학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美)라는 한자는 양을 뜻하는 ‘羊’ 과 크다는 뜻의 ‘大’ 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허신(許慎 58~147)의 『설문해자(說文解字)』 <미부(美部)>에 의하면 ‘미(美)는 달다는 뜻이다. 羊과 大를 의미부로 하며 양은 여섯 가지 가축에 속하며 주로 음식을 공급한다. 미(美)는 선(善)과 같은 의미이다.’ 라고 했다.³⁰⁾ 농경문화에서 큰 양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았고 그 가치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제례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위치했다. 여기서 서양의 미에 대한 개념과 차이가 난다. 또한 서양에서 미에 관한 감각을 시각이나 청각에 국한시켰다면 동양은 미각도 미에 포함시켰다.

중국 상고시대에 생산된 원시 채도(彩陶)를 통해 미적 대상의 생산과정에서 제작과 감상의 행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적 특성을 예술로 표현한 것으로 고대부터 당시 사람들이 미와 예술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동양은 미에 대해 심오하면서 독특한 이론적 연구를 했지만 다만 미적 논의만 있었고 학문의 정립은 뒤늦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승의 형태가 다르다. 서양 미학은 인물 중심의 사상이 전개되어 사상 계보를 그대로 따르거나 또는 그 사상을 보완하여 또 다른 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에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미학의 이론적 근거 마련에 기여한 서양의 사상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했다. 반면 동양 미학은 시대적 차이보다는 사상 유파(流派)의 차이가 컸다. 동양의 각 유파들이 내세우는 사상은 하나의 독립된 구조가 아닌 혼합된 가치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은 유파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시대적 차이를 중시한 반면 동양은 시대적 차이에 유

30) 정슬기, ‘羊’ 部字의 儒家美學의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30.
『설문해자(說文解字)』 <미부(美部)> “美, 甘也. 從羊大. 羊在六畜主給膳也. 美與善同意” .

의하면서 유파의 차이를 중시한 것이다.³¹⁾

서양 미학이 진·선·미 안에서 미 또는 예술에 대한 통찰이 일어났다면 동양 미학은 불·유·도의 사상체계에 의해 미 또는 예술을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명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양 미학에서처럼 사유형식에 의한 분리가 필요하다. 불·유·도에서 말하는 미와 예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생긴 종교이다. 중국 안에 불교가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설이 분분하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1세기 한(漢)나라 때 서역, 즉 티베트를 통해 유입되었다는 설이 가장 보편적이다. 불교의 불법을 전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중국화 되어 기존의 유가와 도가 사상과 결합하는 과정에 종교적 요소를 띤 사상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고 동아시아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불교라는 종교 개념이 아닌 불가라는 사상 유파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한다. 불가 사상은 유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인한 사회성을 강조한 대아(大我)의 성취를 받아들였으며 효와 어른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개인의 수양에 관계로 연결시켰다. 또한 도가 사상이도 일부 흡수하여 만물이 규칙을 따르고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마음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이념이 불교에서 말하는 육체와 내심의 욕망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선이라고 보았다.³²⁾ 불가의 사상은 크게 실상론(實相論)과 연기론(緣起論)으로 구분된다. 실상론은 우주의 실체, 즉 만물의 본질에 대한 것이고 연기론은 생성의 문제를 다룬다.³³⁾ 특히 연기론은 공(空)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즉 모든 사물현상은 반드시 조건에 의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없다는 것으로 세상 만물은 본질이 없으며 비어있다는 것이다.³⁴⁾ 불가 미학은 이 같은 공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일체만물에는 고

31) 장파, 앞의 책, pp.28-32.

32) 장나이치엔, 중국 불교 석굴 조각의 미학적 함의와 그 인격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21-27.

33) 유선순, 동양사상에 나타난 환경관,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2.

정된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에 미의 기준을 외형이 아닌 본질적인 본래의 미로 보는 것이다. 형상보다는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참된 아름다움인 자연, 즉 본래의 미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를 경험하는 자아가 처해있는 나르시시즘적인 의식을 넘어선 후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진여(眞如)의 미’를 만날 수 있게 된다.³⁵⁾

공자(孔子: B.C.551~B.C.479), 맹자(孟子: B.C.372~B.C.289)를 주축으로 시작하는 유가는 미나 예술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사상 안에는 이미 형이상학적인 미학 사상, 예술 정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미(美)자와 관련된 문장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다. 공자는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한다 [盡善盡美]’라고 했고 맹자는 ‘생득(生得)적인 성선(性善)을 충실히 하는 것이 미다 [充實之謂美]’라고 했으며 『주역』 <곤괘·문언> 에도 미의 극치에 대해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³⁶⁾ 또한 『시경』에 나오는 시에 대한 분석과 『예기』에 나오는 예악사상의 분석에서도 미에 대한 표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미(美)자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미에 대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공자가 말하는 문(文)과 질(質)이 조화를 이루어 내면의 도덕적 빛이 들어난다고 표현한 ‘문질彬彬(文質彬彬)’이나 맹자가 말한 ‘광휘가 있는 것은 대(大)이다 [光輝之謂大]’에서 대(大)는 미적 의미이다.³⁷⁾ 결국 유가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 겉과 속, 형식과 내용, 물질과 정신 등과

34) 유증, 동양미학적 조형 관념으로 본 상하이 엑스포 공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19-21.

35) 함현준, 佛敎의 美觀 研究 : 石佛寺 本尊佛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28-33.

36)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p.19.
『주역(周易)』 <곤괘·문언> “곤자는 황색의 치마가 상징한 바와 같이 곤도(坤道)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지켜 방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덕(美德)이 가슴에 가득 차고 온몸에 퍼져 몸을 윤기 있게 해 주며 그 업적은 사업에 나타난다. 이것이야 말로 미의 극치이다.”

37) 조민환, 위의 책 pp.19-20.

같은 대립의 양상을 조화로움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³⁸⁾ 또한 인(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탐구가 중심이 되어 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기 전에 인간의 정신적 순수성과 윤리, 도덕성이 예술 창작에 우선되기를 요구했다. 유가 사상에 근거하여 예술을 이해하려면 덕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선후본말론(先後本末論)’에 입각해야 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먼저하고 말단적인 것을 나중에 하라는 의미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공자가 말한 ‘회사후소(繪事後素)’, 즉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만든 뒤에 하라고 한 것처럼 외면적 형식의 완비성보다 내면적 충실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유가 미학의 전형이다.³⁹⁾

노자(老子: B.C.604~?)와 장자(莊子: B.C.369~B.C.289)로 대표되는 도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도(道)이다. 서양에서는 옳다고 정당화된 것을 ‘진리’라고 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도라고 부른다.⁴⁰⁾ 그런데 서양에서 말한 미의 개념이 동양의 미의 개념보다 도의 개념과 상통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천지만물의 근원, 우주의 진리, 궁극의 존재 등에 부여한 도의 사상이 서양에서 자연미를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가 미학을 논하려면 미(美)와 도(道)를 함께 주목해야 한다. 노자는 도를 통한 학과의 개념을 개창하여 도가 학과를 출범시키고 도가의 미에 대한 사상적 기본 틀을 세운 사람이다. 노자가 직접적으로 미학적 접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철학 사상 안에 중요한 의의가 내포되어 있고 후대 미학과 관련된 명제를 해석하는데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하다. 노자의 미학사상은 고대의 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⁴¹⁾ 장자가 거론한 미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장자는 자연을 심미 판단으로서 미추(美醜)의 상대성을 고려하는

38) 정슬기, 앞의 논문, p.33.

39) 조민환, 위의 책 pp.66-73.

40) 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7, p.730.

41) 조민환, 앞의 책, pp.121-122.

핵심적인 근거가 되며 미적 본질의 맥락을 드러내는 핵심 주제로 보았다. 그의 사상은 상대방의 존재에 의해서 개체의 의미가 더욱 분명히 확인되는 관계적 성향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유가에서도 적용하는 대립적 구조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은 반대이면서 서로 상대방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사물의 효용성의 본질은 분명해질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상대적 인식구조를 취하고 있다.⁴²⁾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미학은 자연을 대하는 관점을 도(道)라는 경지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궁극적 목표점에 나아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장자는 인간을 우주 가운데 놓고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무한과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천인합일, 즉 천지는 나와 공생하고 만물은 나와 합일하는 경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⁴³⁾ 노자도 도를 천지를 생성하는 생성의 원리로 파악하고 그것은 천지만물을 생성하지만 정해진 형태가 아님을 들어 무(無)라 칭하기도 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적이며 예술론의 형이상학적 배경이 바로 도(道)인 것이다.⁴⁴⁾ 도가 미학은 도에 접근하기 위해 순수한 본질과 관계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생성되는 미학의 개념을 설명한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겸허와 숭고의 정신이 미 또는 예술로 표현되는 것이며 동양 미학의 공능(功能)의 개념인 도에 대해 세 유파 중 가장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양 미학을 종합하면 동양의 가치체계는 불·유·도에서 말하는 사유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불·유·도 사상은 서양의 진·선·미 체계처럼 개별화되지 않고 유파의 권장에 따라 고유성을 인정받는다. 불가 미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본연인 자연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미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

42) 이길호, 장자미학을 통한 일상적 공간미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12-13.

43) 조민환, 앞의 책, pp.127. 『莊子』, 「齊物論」, “天地與我并生, 而萬物與我爲一.”

44) 조민환, 앞의 책, pp.128.

간이 자아에 집착을 버리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탐구적, 정신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미에 대해 조명했다. 이는 본래미, 진여미라고 할 수 있다. 유가 미학은 하늘이 부여한 고유한 인간의 본성(性)의 순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신적 발현을 위한 행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했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발생하는 미는 인문 사상에 입각하여 윤리적, 실천적 요소가 나타난다. 미적 범주로는 덕행미, 선후본말미로 설명할 수 있다. 도가 미학에서는 우주나 하늘로 통칭되는 자연에 집중했다. 그것은 고유함을 인정하는 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위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는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구체화되며 주어진 관계성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면적이고 총체적인 미적 요소가 나타난다. 미적 범주로는 관계미, 무위미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동양 미학을 불·유·도에서 보는 미적 가치체계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미나 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남긴 학자들이 다양한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는 간접적인 표현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유·도의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미와 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위해 시도하였다. 도출 방식은 상기한 바와 같이 불·유·도 미학에 대한 내용에 거론된 단어에서 착안하였다.

3) 한국 미학

동양 미학에서는 세상만물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본질, 인간, 자연과의 작용의 강조점을 통해 불·유·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미와 관계하는 사고체계가 인간의 태도를 설정하며 그 과정에서 미

학으로 발현된 것이다. 동양 미학의 가치체계인 불·유·도의 사상은 한국에도 적용되었으며 한국 미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국 사회에 미학이 도입된 것은 서양의 문물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시기이자 외압에 의한 일제강점기의 시대였다. 동양에 미학이 처음 도입된 나라는 일본이었다. 1900년 오오츠가 야스지(大塚保治 1868~1931)가 유럽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동경제국대학에 미학 강좌의 주임교수로 자리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미학 강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는 서양에서 정립된 학문이 아직 서양에서조차 대학의 강좌로 자리 잡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1919년 처음으로 파리대학에 미학 강좌가 생겼다. 중국 내 미학의 유입은 일본을 경유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졌고,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1921년 처음으로 미학 강좌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27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법문학부에 미학, 미술사 전공이 생기면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미학은 일제로 인해 바른 개념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다. 이때 이 강좌를 들었던 사람 중에 처음으로 미학을 연구한 우현 고유섭(1905~1944)이 있다.⁴⁵⁾ 고유섭의 미학은 서양 미학을 수용하여 그를 기초로 한국 미학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⁴⁶⁾ 그는 한국의 미를 ‘구수한 큰 맛’으로 정의했다. ‘구수’하다는 것은 순박순후(淳朴淳厚)한데서 오는 큰 맛이며 깊이에 있어 입체적으로 쌓여있는 맛이며 속도에 있어 완만한 데서 오는 맛이라고 했다. 그 맛은 결국 안으로 응집된 맛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과거문화의 성분요소를 대략 구분하여 통구스적 요소, 대양(大洋)적 요소, 한족(漢族)적 요소, 서역 인도적 요소 등을 미의 주된 줄거리로 언급하였다.⁴⁷⁾ 그는 나열한 성분요소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까지 이어져 오다가 그

45) 임성원, 한국미학의 정초를 위한 예비적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0-24.

46) 이승희, 전통조경공간에 나타나는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9-20.

이후에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고 보았다. 고려시대부터는 귀족사회의 권력에 의해 개인의식이 강해져서 국가적 위세를 대표할 만한 예술품이 없고 그것은 조선에까지 일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사회를 아우르는 미적 현상이 특정계층의 의식으로 인해 분열되었다고 보고 이 때문에 민중의 미, 민예(民藝)에 집중해 보았다.

민예에 대한 조명은 앞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공예품 가운데 특히 민예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태어난 미술보다 생활을 위해 태어난 공예에서 더 두터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념에서가 아닌 생활에서의 아름다움에 주목했다. 또한 순탄하여 파란이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 뽀내지 않는 것,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했으며 평범하고 실용적인 것이야말로 작품에 건전한 아름다움을 보증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예에 나타나는 무작위(無作爲)로 일컬을 수 있는 무유호추(無有好醜)의 미나 무사(無事), 무조작(無造作)의 미 등을 한국의 미로 인정하였다. 미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없고 만약 사람이 미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무아지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 자연이 스스로 표상된 것이라는 주장했다.⁴⁸⁾ 그러나 우리의 이도다완의 미를 논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밥공기, 가난뱅이들도 예사로 사용하는 찻잔,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건, 전형적인 잡기로 지칭했으며 그것을 만든 장인에 대해 비천한 일을 하고 꿈도 꾸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생활하며 초라한 가마와 거칠게 굵는 문맹인으로 표현했다.⁴⁹⁾ 이는 앞서 미란 자연스럽게 만드는 무아지경의 경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언급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식민사관의 하나로 논의되긴 하지만 무작위의 미, 무기교의 미라는 관점을 적용한 바는 한국 미학의 진행에 이정표가 되어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47) 고유섭, 구수한 큰맛, 다할미디어, 2010, pp.11-19.

48) 이승희, 위의 논문, p.18.

49) 야나기 무네요시, 다도와 일본의 미, 도서출판 소화, 2010, pp.48-51.

혜곡 최순우(1916~1984)는 구체적인 유물을 통해 한국미의 특질과 한국 미학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미술5천년>, <조선시대 회화>, <한국민예미술> 등의 수많은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한국미술사의 대맥을 세운 미술사가이자 미학자이다. 최순우는 사변적인 논리체계로 한국 미학의 틀을 전개하는 대신 유물의 실재를 통해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논증하는 미학적 사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전칠구름봉황꽃새무늬빗집>을 평가하던 중 나전칠기의 좋은 도안을 보고 있으면 느긋하고 희뻘고, 희뻘우면서도 익살스러움이 한 가닥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다.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면서, 산마루의 중첩으로 이뤄진 능선들을 보면서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의 안목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⁵⁰⁾ 즉 한국의 미의 특질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질박하여 결국 자연과의 조화로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인물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의 재건과정에 이어 근·현대로 이르는 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미를 찾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미에 대한 철학적 근거 제시보다는 예술작품을 통해 미를 정의함으로써 미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미비함을 노출시켰다. 이는 2005년 교수신문사에서 진행된 ‘한국미 논의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에서도 한국 미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 좌담에서 민주식(영남대학교 조형대학 미술학부 교수)은 한국미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며 미에 대해서 구조화하고 개념화하여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미학은 문화인류학이나 민속학, 사상사의 논의도 필요하며 이러한 종합이 다양성을 포괄하는 큰 개념을 만들어내고 한국미는 한국미술사, 한국 미학 전공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인문학,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가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이러한 주장은

50) 유홍준, 안목, 놀와, 2017, pp.102-113.

51) 권영필 외, 한국의 미술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15, pp.314-322.

차문화 공간의 미학 연구가 한국 미학의 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견해이다.

앞서 살펴본 동양 미학의 가치체계인 불·유·도는 한국 미학에도 적용이 된다. 서양 미학, 동양 미학, 한국 미학의 전개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미학은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큰 범주인 동양 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이는 한국 미학을 분석하는 미학자들의 의견으로 전제되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미학만의 미적 명제의 존립을 개진(開陳)하기에는 뒷받침할만한 이론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미학의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동양 미학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되 세부적인 근거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분야별 연구들이 앞으로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표 2>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의 비교 *

서양 미학		동양 미학 / 한국 미학		미적 배경	미적 요소
가치체계	미적 범주	가치체계	미적 범주		
진	순수미 특성미	불	본래미 진여미	자연 환경	탐구적 정신적
선	비극미 희극미	유	덕행미 선후본말미	인문 사상	윤리적 실천적
미	우아미 승고미	도	무위미 관계미	사회 문화	총체적 내면적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Ⅲ.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적 관점

1. 차문화 공간의 미적 배경과 범주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국과는 다른 배경과 가치관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다. 불·유·도 또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되었는데 이는 시대에 맞게 조향(操向)하는 민족 고유의 항구적 특징에 의한 것이었다. 즉 그 차이는 정보를 지각하고 선택하며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것을 성정, 심리적 기질, 기저 문화라고 할 수 있다.⁵²⁾ 이는 미의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 미학이 갖는 개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미의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의 미에 대한 표현은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 권 23 <백제본기(百濟本紀)> 제1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 15년에 궁궐건축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春正月 봄 정월,
作新宮室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儉而不陋 검박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華而不侈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아니하였다.⁵³⁾

이 내용은 백제의 궁궐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 건축에 대한 미적 표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적 표현에 앞서 가져야 하는 심미성을

52) 지상현, 한중일의 미의식, 아트북스, 2015, p.9.

53) 김부식, 삼국사기, 동서문화사, 2016, pp.445-454.

제시한 것으로 검소함과 누추함,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상대적 비교 군으로 대비 구조가 아닌 허용치의 명목으로 이해되며 이를 적용할 힘이 바로 그 시대에 미를 바라보는 미의식이다. 검소함과 화려함을 인간의 겸양과 수신을 통해 발현 가능한 정신적인 미라고 하면 누추함과 사치스러움은 인간의 무지나 욕망의 집착에 의한 물질적인 미인 것이다.

한국의 미의식에 대한 분석은 시대관점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미의식이란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서 오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에 대한 개념이며 그 구성원들의 집단 경험이 여과된 것으로 집단을 지배하는 미의 원리이다. 이는 특정 집단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미적 체험을 통해 체화되어 온 것을 일컫는다.⁵⁴⁾ 이러한 미의식은 미적 범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지칭의 유무이다. 즉 미의식이 미적 경험을 통한 선택적 사유를 관장하는 포괄적 관념의 개념이라고 할 때, 미적 범주는 이를 명사화 하여 ‘~ 미’라 하는 미의 술어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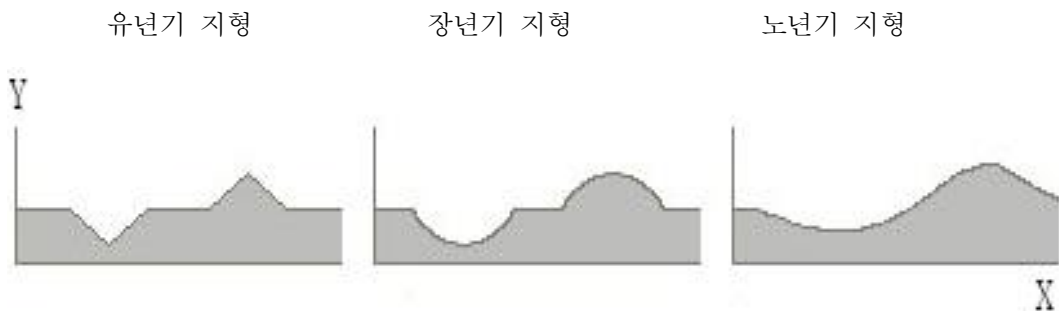
결국 미학 연구는 한 국가의 미의식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리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한 학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 공간의 미적 특성으로 미적 배경과 요소 그리고 미적 배경을 분석하는 과정에 함께 고찰되는 미적 범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연 환경

자연 환경에서 자연은 광의적 개념의 신이나 우주, 세계이며 정해져 있는 관계를 위배하지 않고 보존하는 정신 그 자체이고 환경은 세상만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상태나 조건을 함께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양에서 자연의 위치는 중요하다. 자연을 보는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과 동일하

54) 이인숙,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5.

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동양 미학의 불·유·도는 자연 환경을 대하는 방식에 시각차가 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우선하는 도가에서는 천일합일·무위자연의 자세를 강조하여 인간이 자신도 자연임을 자각하게 한다. 하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집중했던 유가에서는 인본주의를 강조하여 하늘이 부여한 성(性)대로 살기 위해 실천 자세를 강조한다. 본질 자체에 의미를 둔 불가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하여 자연과 내가 하나인 일원론, 즉 불이(不二)사상의 입장을 표방한다. 도가 미학에서 인간이 자연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과 불가 미학에서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불이는 같은 입장으로 보이나 도가는 현상 그 자체를 본질로 보는 점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인간을 자연물로 보는 수용적 자세를 나타낸다. 그에 비해 불가의 관점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심성이 동화되는 동일시의 자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 환경적 요소는 어느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연 환경의 본래적 인자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면서 자연 환경에 동일시되는 인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고 불가 미학의 관점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불가 미학의 공(空)사상이다. 이는 본질적인 본래의 미로써 자연 환경의 형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심성을 이해하면서부터 미적 범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2> 지형의 특성*

* 출처 : 본 내용을 통해 연구자가 재구성

이에 자연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면서 내포되어 있는 미를 탐색하려 한다. 첫 번째는 한국의 지형적 특징이다. 순수하게 관조되는 자연으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외형적 성격을 말하고 있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1850~1934)에 의해 주장된 침식 윤회설에 의하면 지형의 모양은 온난기후에서 강수량 등에 의해 지면이 파이면서 생긴다. 유년기 지형은 X축의 지평선을 유지하다가 V자형으로 골짜기가 생기고 다시 지평선을 유지하다가 파인 골짜기만큼의 Y축의 급격한 산지가 생성된다. 장년기는 지평선을 지나 그 급격함이 완만해지다가 노년기에 와서는 지평선과 산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년기성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노년기 지형의 특징은 기복이 완만해져 사면의 경사가 50도 내외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완만한 조형성이 한국인의 심상(心象)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의 그래프처럼 산의 경사도가 급격한 유년기, 장년기 지형에서는 X와 Y축의 뚜렷한 가시적 효과에 의해 분별 가능한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반대로 탁 트인 직선적 지평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X와 Y축의 좌표의 인식이 완곡한 노년기 지형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현상학적 시선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노년기성 지형은 상하의 기복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유연함과 끊어지지 않는 선의 흐름으로 탈긴장의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⁵⁵⁾

완만한 곡선적 지형은 집터의 높고 낮음, 방위의 설정 등으로 건물의 배치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좌우대칭 또는 비좌우대칭의 공존체계를 형성하고 유연하게 흐르는 땅의 모양 그대로에 순응하는 한국인의 질박한 순수의 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적 아름다움의 핵심인 완만한 곡선미는 한국의 여러 방면에서 확인 가능한데 의복이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찾아

55)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p.168-174.

볼 수 있다. 건축에서의 곡선은 지붕의 처마선과 용마루선에서 가장 확실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지붕에서 가장 높은 용마루를 만들 때 중앙부가 처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인 현수선은 다른 현수선들과 곡선 값이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다. 그것은 주변의 크기가 다른 능선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실루엣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⁵⁶⁾

두 번째는 환경적 배경이 되는 재료와 기후적 특징이다. 주변에 널려있는 건축 재료는 미적 특질과 미의식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공간을 조영(造營)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본재료를 뜻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돌과 나무를 들 수 있는데 한국의 돌은 대부분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서양의 대리석과 달라서 재료로 사용할 때 우리만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대리석이 다루기 쉽게 연하고 부드러운 반면 화강암은 아주 단단하여 형태를 만들기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화강암으로 하는 표현은 외부적 보다는 내부적 표현이 강조되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감보다는 소박한 온화한 질감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한 상태로 탈기교적 성격을 띠게 된다(그림 3, 그림 4).



<그림 3> 고성리 산성 성벽
출처:임석재(2016)



<그림 4> 도동서원 중정단 기단 석축
출처:임석재(2016)

56)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pp.3-8.

나무 또한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재료로 나무의 외형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한다. 흰 나무 그대로를 대들보로 사용한 <그림 5>의 무성서원 강당이나 <그림 6>의 식영정 등지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원은 사특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에 외형에 신중을 기했다. 그림에도 흰 기둥을 사용한 예를 통해 자연 재료의 자체 완결성은 자연의 선한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의 심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르지만 다양한 차이들과 협력하고 어울려야 지속가능한 역동적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본 믿음이 반영된다. 57)



<그림 5> 무성서원 강당
출처:임석재(2016)



<그림 6> 식영정 대청
출처:임석재(2016)

사계절이 분리되어 있는 기후도 미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 공간 안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반대되는 성격임에도 한국의 건축공간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바로 사계절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창호의 들어열개 개폐법은 공간 모두를 개방시켜 개방감의 최대치를 끌어올린다. 동시에 이 개구부는 덧창, 쌍창, 갑창으로 세 겹을 이루며 다시

57) 임석재, 한국건축과 도덕 정신, 새문사, 2016, pp.79-94.

덧창 위에 문염자, 갑창 안쪽으로 병풍을 둘러침으로써 폐쇄성의 극대치를 이룬다.⁵⁸⁾ <그림 7>에 나타난 덧창, 쌍창, 갑창은 보온을 위해 겹쳐서 설치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문염자는 지금의 커튼과 같은 차단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 안에서 양면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은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는 현명함과 합목적인 시각으로 만든 절제의 미가 적용되는 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 환경에 대한 시선의 머무름이 한국인의 심성에 남아 미의식으로 발전되며 이는 불가 미학과 상관성이 있다. 불가 미학은 본연의 미감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관조하는 주체가 현상을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미적요소이므로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들어열개 창>

<쌍창>

<창의 구조>

<그림 7> 창 의 종류

출처: 김왕직(2017)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과 관련된 미적 배경은 차와 관련된 기록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차 관련 기록물과 자연 환경의 연관성은 행위적 관점을 통해서 구현된다. 기록은 후일(後日)을 위해 당시의 사실이나 기록자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정신적, 탐구적 심리에서 대상의 본연(本然)을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이기에 자연 환경적 배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때 그 대상은 ‘차’ 이다. 이 시대의 기록물을 시, 서, 화로도 일컫지

58) 주남철, 앞의 책, pp.9-10.

만 오늘날 차문화의 기록물을 분리하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해 다시(茶詩), 다서(茶書), 다화(茶畵)로 지칭하여 차가 포함된 내용임을 함축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다시와 다화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후술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기록물에 대해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하나는 차라는 단독 기록물인 다시와 또 다른 하나는 백과사전류인 기록물이다. <표 3>은 단독 기록물인 다서를 제작 시기별로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한재 이목(1471~1498)의 『다부(茶賦)』는 1495년에 지어졌다. 부(賦)의 형식을 취하여 차에 대한 예찬을 기록한 글로 서론, 본론, 결론의 논문형식을 취했다. 차의 칠수(七修), 오공(五功), 육덕(六德)을 통해 자신만의 사상적 핵심인 다심일여(茶心一如)의 경지와 오심지차(吾心之茶)라는 차 정신을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⁵⁹⁾ 이운해(1710~?)는 1755년에 『부풍향다보(扶風鄉茶譜)』를 썼는데 이는 상기했듯이 조선의 자주적 차문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던 무렵에 지어졌다. 맛이 쓰기만 해서 상비약 정도로만 여겼던 우리 차에 주치의 처방에 따른 약초를 배합하여 효능을 강조하고 독창적인 제조법 및 음다법을 고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 다서이다. 이덕리(1728~?)의 『기다(記茶)』는 1785년 전후로 지어진 문(文)으로 앞쪽은 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뒤쪽은 차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쓴 것이다. 차가 국부 창출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서 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었다.⁶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약용(1762~1836)의 『경세유표(經世遺表)』 권 11 <각다고(榷茶考)>에서는 차의 전매제도와 관련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박영보(1808~1872)는 초의차에 감동을 받아 답례의 의미로 1830년에 『남차병서(南茶并書)』를 지었다. 이는 후에 나오는 『동다송(東茶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시기적으로 남차병서 이후 초의의 동

59) 최진영, 한재 이목의 차정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20-21.

60) 정민(a),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김영사, 2015, pp.48-54.

다송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초의선사(1786~1866)는 동일한 년도에 『다신전(茶神傳)』을 발간하였다. 이는 장원의 『다록』을 등초한 것이며 이후 1837년에 자신만의 다서인 『동다송(東茶頌)』을 펴냈다. 이외에도 백과사전류에 기록된 차 관련 서적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상을 보면 조선시대 자연 환경 속에서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에 펼쳐진 차가 가지는 위상의 상승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총서류로 독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선후기 사물에 대한 지적 흐름에 박물(博物)적 관점이 강화되어 사물에 대한 관심과 박학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⁶¹⁾ 이렇듯 쇠퇴와 답보 상태를 지나 부흥의 시기에 남아있는 차 관련 기록물은 현재 차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차’ 본연의 것에 집중했던 자세에 기인하며 이러한 정신적, 탐구적인 시선은 자연 환경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표 3> 조선시대 전문 다서 *

인 물		다서명	발간년도	내용
이목	1471~1498	다부	1495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
이운해	1710~?	부풍향다보	1755	7가지 기능적 향차에 대한 기술
이덕리	1728~?	기다	1785(?)	차 및 차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기술
정약용	1762~1836	각다고	1817	차 관련 세수 및 중국 전매 정책 기술
박영보	1808~1872	남차병서	1830	초의차 화답 및 우리 차의 칭송
초의	1786~1866	다신전	1830	다도 교육을 위한 다록의 등초본
		동다송	1837	차 관련 지식 전달 및 우리 차의 칭송

* 출처 :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61) 손정희, 19세기 博物學的 趣向과 繪畵의 새로운 경향, 한국문화 44, 2008, p.49.

2) 인문 사상

인문주의(人文主義), 인본주의(人本主義)는 유가의 핵심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초월적 존재인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인간에게 집중하게 만든 사상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천(天)’이 의미하는 바를 도가에서는 자연이나 신, 우주, 세계의 관점 등의 이원론적으로 보았다면 유가에서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일체론적 관점으로 보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역할론을 강조했다. 즉 천(天)은 인간의 내부에 살아있는 근원으로 그 과정을 밟는 수순을 도(道)로 보았으며 그것을 내적으로 실천하는 원리는 인(仁)이며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예(禮)인 것이다. 인본주의는 인(人)=민(民)으로 구체성을 제시한 조선시대 민본주의에 주목을 하게 한다. 인간을 뜻하는 보통명사, 즉 평이한 존재의 구분 방식을 소속의 특수성을 강조한 백성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하면서 ‘우리’라는 동질적 집단사상을 내포한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삶의 방향과 존재이유를 찾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중용(中庸)』에서도 주어진 운명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면서 철학적 근거로써 수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中)은 대상을 향한 객관성으로 용(庸)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성으로 보았다.⁶²⁾ 수신(修身)의 목적성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한 사상의 발판이 된다. 이때 수신을 하는 인간관계의 과정에서 특수한 미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불·유·도라 일컫는 사상의 다원성은 하나의 핵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다. 특히 조선시대는 불교와 유교의 혼용으로 이때 표면적으로 불교 사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적

62)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p.107.
『중용(中庸)』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教.

으로 침잠되어 있었다. 유교 사상 중 하나인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고려 말부터 유입된 사상이다. 신유학인 성리학과 기존 유학과의 차이는 거대한 우주론적 형이상학과 심오하고 복잡한 수양론을 함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상이 조선시대에 적용되어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문(文)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문이 발달하게 되었다.⁶³⁾ 수신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사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선비사상이다. 선비는 윤리 교육을 거쳐 실천 철학을 익혀야 하며 유교 경전에 밝아야 하고 시대에 부여된 신분 중 양반에 의거한 지성인이었다. 그러나 양반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터득하지 못하면 선비의 행세를 할 수 없었다. 비록 농사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비의 학문을 익혀 선비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 선비가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조광조(1482~1519)가 갖바치를 선비로 대우를 했던 일화만 보더라도 학문과 덕행을 고루 갖춘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준수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⁶⁴⁾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천 철학을 위한 과정 가운데 미가 생성된다. 대부분 예술적 실체를 통해 그것을 지켜보는 대상에게 영향을 미쳐 미가 발전한다면 선비사상으로 표출되는 내면의 미의식은 생성하는 주체인 선비 자신이 감화되는 것이며, 이러한 수신을 통해 겸양의 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선비가 머물렀던 실내 공간에서도 미가 드러난다. 마음의 안정을 중시하여 중점을 둔 것이 빛과 조형물이다. 특히 빛을 통과시키는 창호는 문양에 따라 조형의 미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안착시키는 특징이 있다.⁶⁵⁾ 선비의 고고함은 때로는 학에 상징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색감의 이미

63) 신혜현, 조선 초기 문인의 차생활 정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1-15.

64) 김아롱,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五友歌)를 중심으로 한 선비정신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0.

조광조와 갖바치에 대한 사서 :이궁익(1736~1806) 연려실기술 제8권, 중종조고사본말(中宗朝故事本末)

65) 강대석, 앞의 책, pp.150-151

지는 백색이다. 백색은 우리민족에게 중요한 지각의 요소로 신성의 의미이며 깨끗하여 티가 없고 환하여 막힘이 없는 상징으로 그에 대한 선호의식이 생겨난다. 백색은 순환하는 순리이며 자연 그대로이고 인간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인격과 형식, 규범 등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백색을 숭상했던 의식 속에는 감정을 초월한 고매한 인격에 이르기 위한 특유의 인생관이 표출되는 것이다.⁶⁶⁾

인문 사상적 배경은 유가 미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선시대의 철학사상은 유학에서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논리가 생성되었다. 하늘이 부여한 고유한 성(性)대로 사는 ‘나’ 그러한 ‘너’의 관계는 하늘과 하늘의 관계로 불가침영역인 것이다. 그러한 고정된 가치 속에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조율하기 위한 사유의 과정에서 미적 범주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 미학의 인문 사상적 배경을 행정과 관련된 현상으로 다시(茶時)와 야다시(夜茶時)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는 고려시대부터 있어왔던 풍속으로 공정한 판결을 위해 관아에 있는 관원들이 매일 차를 마시는 시간을 지칭하며 사헌부 및 일반 관아에서도 이루어졌던 행정 절차이다. 서거정(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1권에 다시에 대한 언급이 있다.⁶⁷⁾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 12권 <인사문(人事門)>에서는 야다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두 내용을 통해서 행정상 운영된

66) 신다예, 한국인의 전통생활 속에서 나타난 백색 선호의식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50.

67) 서거정 『四佳文集』 卷之一 <司憲府齊坐廳重新記>

府之廳事有二。°曰茶時 °曰齊坐 °茶時者 °取茶禮之義 °高麗及國初 °臺官只任言責 °不治庶務 °日一會 °設茶而罷 °사헌부의 청사(廳事)는 둘이 있는데, 다시청(茶時廳)과 제좌청(齊坐廳)이다. ‘다시’라는 것은 다례(茶禮)의 뜻을 취한 것이다. 고려 때와 우리나라 초기에 대관(臺官)은 말하는 책무만 맡고 다른 여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한번씩 모여서 다례를 행하고는 마쳤다.

68) 이익 『성호사설』 12권 <인사문(人事門)>

云當時有夜茶時之語自宰相以下或有奸濫不法者諸監察乘夜茶時于其近地書其罪惡於白板掛諸門上以荊棘封其門著署而散其人遂禁錮永為棄物夜茶時一句俚俗猶傳為造次搏擊之語嗚呼國朝

차문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차를 마시는 별도의 시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려의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의 맥을 잇는 것이다. 야다시는 관리들의 비리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행정 제도는 국가 이념과 연관이 있어 특히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주관하는 자의 공적인 판단력을 높이고자 행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사상이 공명정대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알 수 있는 측면으로 관료들에게 개인의 윤리성을 위한 수신과 겸양의 미덕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인문 사회적 배경에 의한 윤리적이고 실천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3) 사회 문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별로 형성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의 분리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이로 인해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로 나뉘지게 되며 다수와 소수, 남성과 여성 등의 이분적 사회 문화적 배경을 초래했다. 문화를 토착문화와 외래문화로 설명할 때 두 문화의 융합을 위한 내적 요인, 즉 풍토성과 민족성에 기인한 주체의식을 통해 해당 민족만의 독자적인 문화의 성격이 형성되게 된다. 토착문화는 외래문화에 의해 상승발전하고 외래문화는 토착문화에 의해 심화된다. 접할 기회가 많은 지배층을 중심으로 외래문화가 수용되는데, 이에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피지배층은 토

美風何可復見 또 그 당시 야다시(夜茶時)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야다시란 재상 이하 누구든지 간사하거나 범람하여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여러 감찰들이 야다시를 틈타 그 근처에 가서 그의 죄악 사실을 흰 판자에 써서 그 판자를 문 위에 걸고 가시나무로써 다시 그 문을 봉한 뒤에 서명하고 흩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드디어 출입을 못하고 아주 기물(棄物)이 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런데 야다시라는 한 마디 어구가 세속에 선 잠깐 사이에 남을 때려잡는 말로서 전해지고 있으니, 아! 국조(國朝)의 아름다운 풍속을 다시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착문화를 바탕으로 균등한 미적 범주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차이가 나는 두 문화가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한다.⁶⁹⁾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현상을 접화(接化)라고 한다. 접화는 치우침이 없는 균등한 통합으로 음과 양, 하늘과 땅처럼 운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대립적 요소가 상생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접화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는 쓰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접화군생이란 말은 불·유·도에 회통한 인물이었던 신라 최치원(857~?)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는 풍류하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 도는 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핵심은 삼교를 아우르는 접화군생에 있다’고 했듯이 최치원은 고대부터 외래문화의 접점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의 감성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⁷¹⁾ 군생(群生)을 뜻 생명체라고 지칭할 때 접화군생은 뜻 생명체가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말이다. 풍류하는 현묘한 도라 일컬은 것이 접화 현상에 발현되는 미를 말한다. 풍류의 사전적 의미는 운치, 멋, 해학, 아취, 유희 등과 유사한 표현으로 다양한 미적 범주를 압축하는 말이다.

한편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인에게 자리 잡힌 사상이다. 풍수지리설은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서 시·도·읍지의 결정, 궁궐의 배치, 일반 사대부들의 택지 선정, 건축 배치, 평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집과 관련된 양택론을 중시하고 집의 배치, 방위와 관련된 음양오행에 의거하여 집의 길흉에 민감하게 적용하였다. 집의 평면 형태 또한 길상문자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길흉을 점쳤던 도참사상이 영향을 준 이유이다.⁷²⁾ 음양오행설은 우주의 현상이 상대성인 음과 양에 의한 발생, 생성, 소멸의 반복과 우주원기의 작용을 통해 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상

69) 이승희, 앞의 논문, p.56.

70) 최광진, 앞의 책, p.98

71) 신운용, 최치원 사상의 중착점과 ‘풍류’의 발현, 선도문화, 14, 2013, pp.177-178.

72) 주남철, 앞의 책, pp.12-13.

호 보완적 관계로 연계하여 해석하는 이론이다. 풍수지리설은 그런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지리적, 지형적 특성으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⁷³⁾ 도참사상은 미래의 길흉에 관한 예언을 믿는 사상으로 우주에 대한 경이와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염원에 의한 것이다. 즉 징조나 상징 등으로 암시된 현상을 해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과 연관 짓는 일련의 기호학적 원시성으로 볼 수 있다.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은 우주인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의 질서로 인해 균형, 조화의 미를 생성시키며 인간의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타르시스로 해석적이고 유희적인 미가 발달하게 된다. 세 가지 사상은 조화를 통해 상통하는 의미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 문화 배경은 도가 미학과 연결될 수 있다. 도가 미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 미학으로 하늘로도 일컬어지는 자연과 인간을 주종의 설정이 아닌 동급의 군집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접화와 조화의 원리이다. 접화가 관계성에 의한 창조적인 발현이라면 조화는 질서적인 발현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문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접목이 필요한데 접목에는 접화와 조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다양한 미적 범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의례 및 다례를 탐구할 수 있다.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조정과 왕실의 각 의례에 차가 쓰였다.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인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뿐만 아니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궁중에서의 특별한 다례인 주다례(晝茶禮), 별다례(別茶禮), 회강다례(會講茶禮) 등에도 차문화가 존립했다. 궁중에서의 다례를 궁중다례(宮中茶禮)로 통칭할 때 이는 내시원(內侍院)에 소속된 다방에서 관장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별도의 다례나 차 소비를 맡아보는 관비를

73) 유중, 앞의 논문, p.29.

두기도 했다.⁷⁴⁾ 의례 및 다례를 통해 드러나는 차의 역할은 주관자의 심성을 통해 나타난다. 다례는 신이나 조상 등 무형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내면적 심상이 유형적 존재물인 ‘차’를 통해서 행위로써 외면화된다. 의례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 예컨대 주인과 손님의 관계, 의례에 적합한 기물과의 관계, 의례의 대상과의 관계 등 그것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총체성을 통해 발전한다. 따라서 의례와 다례에 나타난 현상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내면적이고 총체적인 특징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 배경에 의해 발달한 미는 통시성에 의해 우리 민족의 전(全)시대의 미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미가 그대로 전해 오거나 현 시대에 맞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서 한국 미학으로 변화, 발전해온 것이다. 동양 미학의 가치체계를 불·유·도로 이해할 때 한국 미학은 그 사상에 결합하는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양이라는 보편성과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혼합된 미적 범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미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 공간의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다음의 <표 4>로 정리하였다.

74)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열화당, 2009, p.55.

<표 4> 차문화 공간의 분석을 위한 구성 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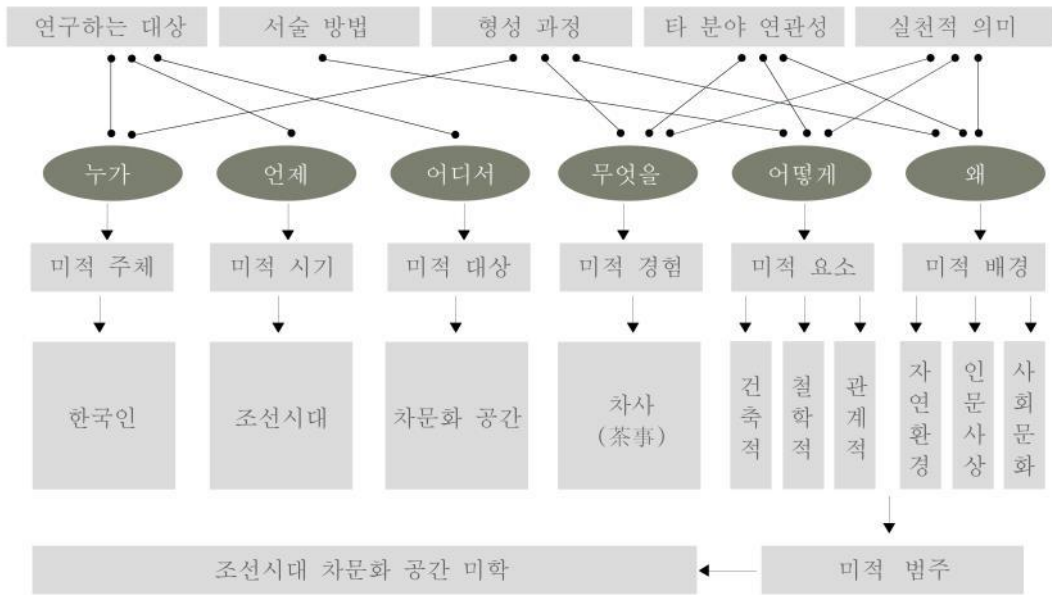
미학의 가치체계	미적 배경	배경 인자	미적 범주
불	자연 환경	지형	관조, 완만, 순수, 유연, 탈긴장, 질박, 소박, 온화, 합리적, 절제의 미
		재료	
		기후	
유	인문 사상	인본주의	수신, 중용, 겸양, 순백, 청아, 풍류의 미
		선비사상	
도	사회 문화	접화	균형, 접화, 조화, 해학, 멋, 유희의 미
		조화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2. 차문화 공간의 미적 요소

미학은 인간이 세계를 미적으로 습득하는 데 필요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5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즉 해당 학문이 연구하는 대상, 사용되는 서술방법, 해당 학문이 형성되어 온 과정, 다른 학문과의 연관성, 현실에서의 실천적 의미가 그것이다.⁷⁵⁾ 따라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연구하는 분석체계에 의거해 신뢰성과 객관성의 전달체계인 6하 원칙의 방식을 따랐다.

75) 강대석, 앞의 책, p.11, p.25.



<그림 8>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분석체계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미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의 충족을 위해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 접근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하는 대상은 한국인,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이다. 이는 미를 연구하는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미적 주제, 미적 시기, 미적 대상을 뜻한다. 둘째, 서술방법이다. 미를 분석하기 위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본 틀의 설정으로 이론화 작업을 위한 미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형성과정은 미를 경험하는 주체에 대해 탐구하고 어떠한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미적 경험과 미적 배경이 해당된다. 특히 미적 배경은 미를 보는 주체의 전의식(前意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의식이 발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타 분야와의 연관성으로 보편타당한 분석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의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적 경험이 주기적 반복

성을 지니거나 항상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위에서 밝힌 미적 배경과 요소가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섯째, 실천적 의미이다. 미적 경험, 미적 요소, 미적 배경이 이에 해당한다. 미를 경험하는 동안 그에 따른 요소와 배경의 영향으로 미의식이 형성되고 다양한 미적 범주가 발생하게 됨으로 미에 대한 실천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 <그림 8>은 미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분석체계를 설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선의 전 시기를 조명하되 조선후기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한다. 즉 역학적 상관성이 있는 조선 전·후기의 자료를 포괄함과 동시에 쇠퇴성을 보이던 전기의 차문화가 후기에 와서 활발하게 변천하게 되는 과정의 시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건축적 요소

(1) 자연 환경적 배경의 영향

미학의 역사는 개념과 형식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으며 특정시대의 창조물에 대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 시대의 창조물 중 가장 부피가 크고 시각적이며 시대의 관점과 미의식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분야가 건축이다. 특히 건축 중에서 주생활과 연관된 공간은 삶의 기본욕구 해소와 문화적 활동이 종합되어지기에 해당 국가만의 고유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실제적 공간을 미적 요소 중 건축적 요소로 명칭할 때 건축적 요소에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 환경이다. 동일한 사상이 관여하고 있는 동양문화 안에서 자체 미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구성원들에 에워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① 지형

각 나라마다 달리 나타나는 건축물의 외형은 시대를 관통한 미의식의 잣대로 이해된다. 조형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은 가장 객관적인 시각화로 표현되므로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조형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지형적 인자이다. 한국의 노령화 산지에서 출발한 완만한 곡선 값은 수치적인 환산보다 한국인의 시각적 감각에 의해 와 닿는다. 특히 지붕은 육중하여 건물의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⁷⁶⁾



<그림 9> 해인사 궁현당 지붕
출처: 임석재 (2016)



<그림 10> 경복궁 근정전
출처: 지상현 (2015)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배경이 되는 능선과 지붕선이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 산지가 주는 자연적 조건이 건축에 관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 위치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한 한·중·일의 지붕 형태가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곡선 값을 갖고 있는 점은 산지의 형태가 건축의 외형에 막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설명이 된다.

한국의 지붕은 크게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으로 나뉘는데 모두 곡선이 드러난다. 기와지붕은 지붕 양끝을 향해 처음에는 느슨하게 휘어지다가 끝에서

76)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17, p.183.

잠시 경쾌하게 올라가 이런 곡률의 대비를 통해 완만한 성질과 역동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⁷⁷⁾ 반가의 주거에 사용된 기와지붕의 조형미는 용마루, 처마, 추녀 등 각각의 궤적이 만들어낸 곡선의 총체로 특히 용마루의 현수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술적이기 보다 장인의 미적 경험과 감각에 의지하는 탈기교의 성격에 가깝다. 기와지붕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구분되는데 다화에 나타나는 차문화 공간의 기와지붕은 팔작지붕인 경우가 많다. 반면 초가지붕의 경우 우진각지붕 형태로 곡선의 방향이 기와지붕과 반대방향으로 휘어져 주변 배경인 산의 능선을 닮고 있다.⁷⁸⁾

<표 5>의 조선시대 다화에 나타난 차문화 공간의 지붕형태를 통해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을 살펴볼 수 있다. 기와지붕은 대부분 팔작지붕으로 이것은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모양이며 시기상 가장 늦게 나타난 형태이다. 초가지붕은 추수 후 벼짚을 엮어 있는 지붕과 너와를 얹은 지붕 모두를 포함한다.⁷⁹⁾ 소재의 특징으로 초가 또는 너와로 나뉘진다. 다화의 초가지붕의 모양으로는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붕의 곡선을 통해 드러나는 미의식은 노령화 산지를 통한 한국의 지형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관조, 완만함, 순수함, 유연성, 탈긴장의 미 등의 미적 범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77) 지상현, 앞의 책, pp.24-25.

78) 주남철, 앞의 책, p.8.

79) 김왕직, 앞의 책, p.186, pp.193-195.

<표 5> 조선시대 다화에 나타난 차문화 공간의 지붕형태

	다 화	작 품 명	지붕 형태
기 와 지 붕		<p>이인문 <수로한거도> (樹老閑居圖) 소장:지본담채, 30.0×26.5cm 한양대학교 박물관</p>	팔작지붕
기 와 지 붕		<p>이인문 <누각아집도> (樓閣雅集圖) 소장:지본담채, 86.6×57.6cm 국립중앙박물관</p>	팔작지붕
기 와 지 붕		<p>이인문 <대택아회도> (大宅雅會圖) 소장:지본담채, 38.1×59.1cm 국립중앙박물관</p>	팔작지붕

초 가 지 봉		<p>김홍도 <취후간화도> (醉後看花圖) 소장:견본담채, 78.2×43.3cm 국립중앙박물관</p>	<p>우진각지붕 + 초가지붕</p>
		<p>이인문 <맥반흔포도> (麥飯欣飽圖) 소장:견본담채, 110.4×42.0cm 국립중앙박물관</p>	<p>맞배지붕 + 너와지붕</p>
		<p>이인문 <산거청흥도> (山居淸興圖) 소장:지본담채, 44.0×108.9cm 간송미술관</p>	<p>팔작지붕 + 너와지붕</p>
		<p>이명기 <초당독서도> (草堂讀書圖) 소장:지본담채, 103.8×48.5cm, 리움 삼성미술관</p>	<p>팔작지붕 + 초가지붕</p>

② 재료

한국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나무와 돌이다. 다화를 통해서 건물의 큰 기둥인 대들보의 형태와 기단의 소재인 돌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고 산지가 많아 아열대성 식물부터 한대성 식물까지 분포해 있으며 수종이 다양하고 4계절로 인해 나이테가 선명하게 생성되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건물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수종인 소나무는 재질이 정밀하고 탄력과 인성이 크며 내구성이 강하기는 하나 변형이 심하다.⁸⁰⁾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건물의 대들보는 휘거나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질박한 미, 즉 가공하지 않는 수수한 재료 본연의미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림 11> 윤증 고택 기단

출처: 임석재(2016)



<그림 12> 이인문의

<누각아집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미는 지면의 습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단에 사용된 돌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11). <표 5>와 <그림 11>의 <누각아집도>와 <대택아회도>에 나타난 기단의 계단수로 짐작컨대 높이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석 기단의 형태로 자연석의 특성 그대로를 활용하였다. 자연석

80) 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65-66.

기단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건물에 적용되며 비교적 큰 돌을 그랭이를 떠서 서로 이를 맞춰가면서 쌓는다.⁸¹⁾ 재료의 원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는 동안 질박, 소박함 그리고 건축 재료의 본래 외형을 수용하는 온화함이 표현된다.

③ 기후

사계절의 다양성은 한국만의 기후 특징은 아니다. 비슷한 위도에 있는 다른 동양 국가들과 기후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도 공간을 구성해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기후 조건에 맞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한국의 창호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창호는 개방성과 폐쇄성의 이율배반적 관계로 보이지만 이는 사용 목적에 따르는 합리성과 창호의 구성방식에 있어 불필요함을 줄이기 위한 절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창호의 들어열개 폐쇄법은 창호들을 접어 들쇠에 매달게 됨으로써 기둥들과 인방 사이의 네모난 공간 모두를 개방시켜 한층 강하게 개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세 겹의 덧창, 쌍창, 갑창과 기타 구성을 통해 손쉽게 폐쇄성을 이룰 수 있다.⁸²⁾

창호뿐만 아니라 지금의 커튼과 같은 보온성을 위한 가림막 용도의 소재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김홍도의 <취후간화도>와 이명기의 <초당독서도>를 보면 창에 드리워진 휘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이는 기후적 영향을 위해 마련된 구조물로 방한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창문이나 분합에 걸어두고 낮에는 걷어 올렸다가 밤이면 휘장의 중간에 양편 천의 가장자리가 겹쳐서 서로 덮게 하고 양 가장자리는 동으로 만든 갈고리에 끈을 연결시켜 휘장을 걸어서 걸도록 했던 것이다.⁸³⁾

81) 김왕직, 앞의 책, p.57, p.108.

그랭이는 초석과 기둥을 밀착시켜주는 작업을 말하며 기둥 밑면을 초석 모양대로 깎아내는 것이다. 또한 석축을 쌓을 때 돌끼리 이를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별개의 두 부재가 만날 때 그 모양을 맞춰주는 작업을 말한다.

82) 주남철, 앞의 책, p.10.

83)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18, p.348.



<그림 13> 창에 드리워진 휘장

좌-김홍도 <취후간화도> 출처:국립중앙박물관 / 우-이명기 <초당독서도> 출처:리움삼성박물관

이상과 같이 건축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적 미의식에 있어 지형을 통해 생성되는 미는 관조, 완만함, 순수함, 우연성, 탈진장으로 볼 수 있다. 재료를 통해서도 질박함, 소박함, 온화함의 미를, 기후로는 합리성과 절제성에 의한 미적 범주를 확인하였다.

(2) 건축적 요소의 사례분석

독립성을 유지하며 목적에 의해 공간을 분리했던 서양과 다르게 우리의 공간 사용방법은 단일 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한 합목적 성격을 띤다. 이는 한국인의 합리적 사고방식에서 실용성을 우선하는 검소한 생활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과 같은 특수성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지 않음이 후대에는 자못 아쉽다. 활용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분명하거나 유추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 관한 유추는 해당 기록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차문화 공간에 대한 정의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의 영

역에 관여하는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차와 관계하며 발생하는 요소가 반영된 벽, 바닥, 천정 등 구조적 실체를 띤 건축적 공간을 차문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차문화 공간은 자연 및 실내외 장소까지 포괄하고 있어 분석의 오차가 생긴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선행연구의 차문화 공간에 대해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대로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김건우(2006)는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으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한 다방(茶房)에 대해 서술하면서 국가행사에서 진다의식을 주관한 곳으로 보았다. 또한 다옥(茶屋), 다료(茶寮), 다실(茶室)등 주거의 의미가 있는 공간에 대해 정리하는 가운데 공간 전용성이 높은 주거환경과 학인들의 검소한 정신으로 다옥이나 다실 같은 전용공간보다 거처하는 방을 이용한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공간의 겸용성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활용 면에서 우수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다정(茶亭)과 별서 다옥(別墅茶屋)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⁸⁴⁾ 이정옥(2013)은 차를 통한 학자들의 교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차문화 공간을 간접적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문집을 통해 다회가 일어난 장소에 대해 목록화하여 공적인 다회 장소로 정자(亭子), 별장(別莊), 관재(觀齋)등을 꼽았다. 사적인 다회 장소로는 서재(書齋), 양반가(兩班家)등을 서술했다.⁸⁵⁾ 신혜현(2015)은 차생활 정취를 통해 3가지 공간을 다루었다. 풍류의 공간으로 정자, 누를 꼽았고 불가의 공간으로는 산사, 선방(禪房), 암자(庵子)로 보았으며 별채의 공간으로 산방(山房), 산당(山堂), 모옥(茅屋), 유거(幽居), 서재(書齋)로 나누었다.⁸⁶⁾ 육선자(2002)는 차문화 공간을 인위적인 장소인 건축물로 연구하고자 다회(茶會)나 다례(茶禮)가 행해지는 장소로 보았다. 독립된 집체를 당

84) 김건우, 앞의 논문, pp.29-33.

85) 이정옥, 앞의 논문, pp.106-114.

86) 신혜현, 앞의 논문, pp.70-73.

(堂), 옥(屋), 현(軒), 재(齋), 암(庵)으로 나누고 중심공간으로 실(室)과 방(房)을 살펴보았다. 이외로 정자와 누(樓)도 구분하였다. 공간의 특징으로는 음다 생활이 주목적인 건축물에 대한 존재와 다실 공간의 겸용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소박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논의하였다.⁸⁷⁾

다음은 회화자료를 바탕으로 선행된 연구의 내용이다. 이정아(2008)는 조선시대 김홍도(1745~1806)와 이인문(1745~1824)의 다화를 통해 차문화 공간을 세분화하여 산수, 야원, 누각이나 초옥 등으로 기술하였다.⁸⁸⁾ 이은정(2012)은 차문화 공간 대신 차생활 공간으로 용어를 사용했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산, 냇가, 연못, 수목, 바위 등 경치 좋은 열린 공간의 찾자리를 비롯하여 초당(草堂), 사랑채(舍廊-), 누각(樓閣), 다옥(茶屋), 다실(茶室), 정자(亭子)등을 분석하였다.⁸⁹⁾

이상과 같이 차문화 공간은 각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실내, 실외 공간 및 주변 자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차문화 공간의 범위는 벽, 바닥, 천정 등 구조적 실체를 띤 건축적 공간으로 주거적 성격의 공간, 사찰이나 선방 같은 종교적 공간, 공용적인 역할을 하는 정자나 누각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주거 공간의 성격을 갖는 장소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는 반복적인 일상영역 안에 발생하는 차사(茶事)의 미적 경험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주거의 역할은 현대 주거와 달리 사회적 역할을 병행한 곳이므로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사회활동의 공간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87) 육선자, 한국 음차공간의 역사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5-10, pp.60-63.

88) 이정아, 김홍도·이인문의 작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9-15.

89) 이은정, 조선후기 다화를 통해 본 차생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151-163.

<표 6>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범위 *

선행연구에서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범위
김건우 (2006)	다방(茶房) · 다옥(茶屋) · 다료(茶療) · 다실(茶室) · 다정(茶亭) · 별서다옥(別墅茶屋)	다옥(茶屋) · 다료(茶療) · 다실(茶室)
이정옥 (2013)	정자(亭子) · 별장(別莊) · 관재(觀齋) · 서재(書齋) · 양반가(兩班家)	서재(書齋) · 양반가(兩班家)
신혜현 (2015)	정자(亭子) · 누(樓) · 산사(山寺) · 선방(禪房) · 암자(庵子) · 산방(山房) · 산당(山堂) · 모옥(茅屋) · 유거(幽居) · 서재(書齋)	모옥(茅屋) · 유거(幽居) · 서재(書齋)
육선자 (2002)	당(堂) · 옥(屋) · 헌(軒) · 재(齋) · 암(庵) · 실(室) · 방(房) · 정자(亭子) · 누(樓)	당(堂) · 옥(屋) · 헌(軒) · 재(齋) · 실(室) · 방(房)
이정아 (2008)	산수(山水) · 야원(野原) · 누각(樓閣) · 초옥(草屋)	초옥(草屋)
이은정 (2012)	산, 냇가, 연못, 수목, 바위 등 자연 · 초당(草堂) · 사랑채(舍廊-) · 누각(樓閣) · 다옥(茶屋) · 다실(茶室) · 정자(亭子)	초당(草堂) · 사랑채(舍廊-) · 다옥(茶屋) · 다실(茶室)

* 출처 :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표 6>은 선행 연구를 통해 산정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 중에서 본 연구에 범위에 속하는 차문화 공간인 다옥(茶屋), 다료(茶療), 다실(茶室), 서재(書齋), 양반가(兩班家), 모옥(茅屋), 유거(幽居), 서재(書齋), 당(堂), 헌(軒), 재(齋), 방(房), 초옥(草屋), 초당(草堂), 사랑채(舍廊-)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문헌자료 속에 실제로 사용된 차문화 공간의 명칭을 발굴하여 <표 7>에 수록하였다.

<표 7> 문헌자료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의 명칭 *

문헌자료	수록 내용	공간 명칭
이유원(1814~1888) 『가오고략(嘉梧藁略)』 권12 <가곡다옥기(嘉谷茶屋記)>	작은집을 지어 ‘춘풍칠명지대’ 라고 하였다 (築小屋曰春風嘖茗之臺)	소옥(小屋)
자하신위(1769~1845)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 권4 <무인록(戊寅錄)>	작은 집이나마 손님 자리는 좁지 않건만 (小屋何嫌賓位窄)	소옥(小屋)
정희량(1469~1502) 『허암집(虛庵集)』 권 1 <야좌전차(夜坐煎茶)>	푸른 등불 <u>낡은 집</u> 은 추워서 잠이 안 오네 (靑燈古屋寒無眠)	고옥(古屋)
소세양(1486~1562) 『양곡집(陽谷集)』 권1 <경술년 입춘>	새로 <u>서재 한 칸</u> 을 지으니 (新構藏書屋一間)	서옥(書屋)
기우자 이행(1478~1534) 『기우집(騎牛集)』 권1 <제성상곡 석연 위생당>	깨끗한 새 <u>집</u> 의 흰 널판 문이 새롭고 (蕭灑新堂白板平)	당백(堂百)
박윤목(1771~1849) 『존재집(存齋集)』 권3 <송석원소음>	푸른 숲속에는 <u>초당</u> 이 외롭구나 (靑松樹裏艸堂孤)	초당(草堂)
서유구(1764~1845) 『임원경제지』 <준생팔전>	곁채(側室) 한 칸을 서재 옆에 마련한다. <u>다료(茶寮)</u> 안에는 다조 하나, 찾잔 여섯, 주전자 둘, 다구 하나...	다료(茶寮)
서산대사(1520~1604) <두류산내례적암>	암자 앞에 <u>집</u> 지었네 (築室吾庵前)	다실(茶室)
김상용(1561~1637) 『선원유고(仙源遺稿)』 下 <재용전운(再用前韻)>	<u>작은 집</u> 에서 아무 구애됨 없이 세속과 멀리 있네 (斗室翛然迥絕塵)	두실(斗室)

변계량(1369~1430) 『춘정집(春亭集)』 권 4 <서경사상께서 돌솥을 선물했기에 시로 보답하다>	작은 집에서 차나 끓인다고 하지 말게 (莫謂小齋徒煮茗)	소재(小齋)
장유(1587~1638) 『계곡집(谿谷集)』 권 30 <앞의 시에 첩운하여 조숙온에게 답한 시>	한가한 서재 대자리 위의 찻잔의 김도 식어가고 (閒齋小簞茶煙歇)	한재(閒齋)
박윤원(1734~1799) 『근재집(近齋集)』 권1 <삼척 서루 팔영>	선탑과 다현은 깊숙하여 보이지 않고 (禪榻茶軒深不見)	다현(茶軒)
장훈 (1759~1828) 『이이엄집(而已廣集)』 권 1 <옥경산방 다회에서 유장경의 운을 따서 짓다>	작은 오두막이 자리도 그윽하게 잡아 (小廬居且幽)	소려(小廬)
장유(1587~1638) 『계곡집(谿谷集)』 권30 <썩뚝을 뜨고 나서 서재에 들어 앉아 붓 가는 대로 짓다>	적막하게 싸늘한 방 달빛도 하나 없이 (寂歷寒房閉月華)	한방(寒房)
채제공(1720~1799) 『번암집(樊巖集)』 권 13 <방서진사가>	중당에서 손님 맞을 때 고요하고 침착하니 (中堂迎客靜無譁)	중당(中堂)
이산해(1539~1609) 『아계유고(鵝溪遺稿)』 권 4 <걸귀록>	차 달이는 부엌 대나무 창에 구름이 짙하고 (茶竈竹窓雲作伴)	다조(茶竈)

* 출처 :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이들 문헌자료를 통해서 소옥(小屋), 고옥(古屋), 서옥(書屋), 당백(堂百), 초당(草堂), 다료(茶寮), 다실(茶室), 두실(斗室), 소재(小齋), 한재(閒齋), 다현(茶軒), 소려(小廬), 한방(寒房), 중당(中堂), 다조(茶竈) 등으로 차문화 공간의 명칭을 추출하였다. <표 6>과 <표 7>을 통해 차문화 공간에 대한 명칭을 종합하여 이를 공간을 나타내는 건축 용어로 정리하면 옥(屋), 당(堂), 료(寮), 실(室), 재(齋), 현(軒), 려(廬), 방(房), 중당(中堂), 다조(茶竈)로 분석

된다. 이 가운데 료(寮)와 려(廬), 다조(茶竈)는 환경적 특수를 적용한 용어로 간주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⁹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차문화 공간의 명칭을 최종적으로 옥(屋), 당(堂), 실(室), 재(齋), 헌(軒), 방(房), 중당(中堂)으로 추출하고 독립건물로의 공간,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 일상영역 내 공용공간의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① 독립건물로의 공간 : 다옥(茶屋)

옥(屋), 당(堂), 헌(軒)은 독립적으로 사용된 건축물이다. 재(齋), 실(室)도 독립된 건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해석에 모호함이 있다. 예컨대 재실(齋室)에서의 재(齋)는 제사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상징하므로 독립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서재(書齋)에서의 재(齋)는 건물 내 별도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독립적이지 않다. 조선시대의 서재는 대부분 사랑채에 속해 있는 분리된 하나의 공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옥(屋), 당(堂), 헌(軒)은 차사를 위해 마련한 별도의 공간을 표방하지만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의 수신을 위해 사용된 장소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차를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차사가 진행된 전용 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확실하므로 독립 건물로 인정한다.

‘전당합각 재헌루정(殿堂闔閣 齋軒樓亭)’이라는 말은 주인의 신분에 따라 건물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끝 글자로 서열을 정해 정리한 것이다.⁹¹⁾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신분내지는 서열에 의해서 용어의 쓰임을

90) 다료(茶寮)에서 료(寮)는 병을 고치다는 의미로 차를 통한 치료적 공간의 의미를 함축하고 다려(茶廬)에서 려(廬)는 농막집, 주막, 여인숙을 뜻하는데 주거적 성격보다는 상업적 공간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이다. 다조(茶竈)는 차 부뚜막이나 차 관련 일을 하는 부엌이나 작업대를 뜻한다. 따라서 본 용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91) 홍순민, 건물들의 지위: 전당합각재헌루정, 한국역사연구회, 2007, <http://www.koreanhistory.org/>.

달리 했다는 의미이다. 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축 용어인 당(堂), 헌(軒), 누(樓), 정(亭), 재(齋), 실(室), 가(家), 암(庵), 옥(屋)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堂)은 궁궐과 같이 가장 격식이 높고 규모가 커서 건물 중 으뜸인 전(殿)보다 한 등급 낮은 건물을 뜻하며 전에 딸린 부속건물 또는 부속공간의 중심 건물을 부르는 말이다. 헌(軒)은 살림집 성격인 당의 형식을 갖거나 정자를 말하는 정의 성격을 갖는 특별한 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누(樓)는 중첩시켜 올린 집을 의미하며 목적에 맞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亭)은 원래 잠시 쉬거나 놀다가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 살림집의 당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며 휴식과 유희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유희를 위해서는 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누가 공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공성을 가진다면 정은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 재(齋)는 당과 비슷하지만 제사를 드리거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소박하게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지은 공간이며 살림집에 부속된 암자와 비슷한 개념의 건물이다. 실(室)은 독립된 건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건물 내부의 단위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가(家)는 집을 통칭하는 것으로 집의 쓰임에 의해 살림집의 의미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건물이 모여 있는 집합군을 뜻하거나 인문학적으로는 가족을 포함한 생활로도 해석된다. 암(庵)은 주전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별도로 작게 지은 초막을 말하며 종교적 의미가 있다. 옥(屋)은 기능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며 물리적 성격이 강하다. 방(房)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보통 구들을 장착한 온돌방으로 꾸며지는 일반적 성격의 공간이다.⁹²⁾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 8>로 정리하였다.

92) 김왕직, 앞의 책, pp.438-444.

<표 8> 주거 건축물의 용례 *

명칭	특징	성격	예시
당 (堂)	규모가 커서 다른 건물 중 으뜸인 전(殿)의 한 등급 낮은 건물을 뜻	일반성	궁궐: 양화당, 희정당 사찰: 선당, 승당 서원 및 향교: 사당, 강당 살림집: 양진당, 충효당, 독락당
헌 (軒)	살림집의 성격 또는 정자의 성격을 갖는 건물	특수성	강릉 오죽헌, 안동 소호헌, 낙산재 석복헌
누 (樓)	중첩시켜 올린 집의 의미로 활용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 건물	특수성	객사부속: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 성곽: 문루
재 (齋)	제사를 드리거나 한적하고 조용히 소박하게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건물	특수성	경복궁 집옥재, 안동 김씨 소등재사
실 (室)	독립된 건물의 성격을 띠거나 건물 내부의 단위 공간	일반성 특수성	재실(齋室), 거실(居室), 어실(御室), 온실(溫室), 장실(丈實), 유실(幽室)
가 (家)	집을 통칭, 건물의 집합군, 가족을 포함한 생활형태 보통 집의 성격을 띠	일반성 특수성	가묘(家廟), 가사(家舍), 인가(隣家), 대가(大家), 무가(武家)
암 (庵)	주전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 별도로 작게 지은 초막	특수성	해인사 홍계암, 실상사 백장암
옥 (屋)	기능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	일반성	가옥(家屋), 민옥(民屋), 사옥(社屋), 고옥(古屋), 양옥(洋屋), 초옥(草屋)
방 (房)	거실용도로 사용하는 실의 의미로써 보통 구들을 들인 온돌방으로 설정됨	일반성	공방(空房), 서방(書房), 다방(茶房), 미타방(彌陀房), 수방(水房)

* 출처 : 김왕직(2017)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표 8>을 보면 주거 건축물의 용례를 통해 독립건물의 공간으로 당(堂), 헌(軒), 누(樓), 재(齋), 암(庵), 옥(屋)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중 앞서 문헌자료 내 차문화 공간 명칭으로 도출한 용어로 재분리하면 옥(屋), 당(堂), 헌(軒)을 꼽을 수 있다. 옥(屋), 당(堂), 헌(軒)은 앞뒤의 수식에 의해 다양한 차문화 공간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통일하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표성을 띠는 용어이자 일반적 성격을 나타내며 포괄성을 지니는 옥(屋)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옥(屋)은 기능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건축물이라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해당 한자를 분석해 보면 더 의미가 명확해진다. 옥(屋)은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여 만든 회의문자로 ‘尸’와 ‘至’가 합해진 글자이다. ‘尸’는 주검, 시체 등을 뜻하고 ‘至’는 이르다, 도달하다 등의 뜻인데 둘을 합하면 ‘주검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는 공간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처럼 인간의 전반적인 삶을 아우르는 장소를 뜻하는 옥(屋)은 반복적인 차사를 통한 일상영역을 의미하며 차문화 공간의 역할에 가장 부합한 단어인 것이다. 따라서 차문화 공간에 대한 독립건물을 다옥(茶屋)이라는 용어로 정착하여 차문화 공간 미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지칭하고자 한다.

다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굴산 이유원(1814~1888)이 차를 즐기기 위해 만든 차문화 공간인 다옥(茶屋)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가곡다옥기(嘉谷茶屋記)>를 분석해 본다.

余性素嗜茶	내 성품이 평소에 차를 좋아한다.
得四方名茶	사방에 이름난 차를 얻으면
輒走好山水烹飲	문득 산수가 좋은 곳으로 달려가 끓여 마신다.
居漢水上	한강가에 살 때는
築小屋曰春風啜茗之臺	작은 집을 지어 ‘춘풍철명지대’라고 하였다.
葉遂翁東卿題贈.	글씨는 수옹 섭동경이 써서 주었다
.....(중략)	

傳手灌來	하지만 손을 대고서 찻물을 따라도
猶不免爲塵霉沙石之侵	오히려 티끌이나 모래 등이 날아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乃支木爲架	이에 나무를 세워 시렁을 만들고
覆之以板	위에는 판자로 덮었다
起於堂隅	집 모서리에다 이를 세우니
宛是一屋子	간데없이 하나의 집이 되었다
長可五尺	길이는 다섯 자 남짓 되고
廣踰二尺	너비는 두 자가 넘었다 ⁹³⁾

이 다시는 다옥이라는 용어의 쓰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옥을 짓게 된 연유와 그 규모를 알 수 있기에 차문화 공간을 논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건물을 조영할 때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이름을 부여하였는데 이유원도 작은 다옥을 지어서 그곳을 ‘춘풍철명지대(春風啜茗之臺)’라고 명명했다. 이는 봄바람이 부는 차 마시는 누대라는 의미로 다옥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누각같이 지면에서 올라오게 하여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나무를 세워 시렁을 만들고’에서 시렁이 공간을 조금 높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뒷받침한다. 또한 다옥을 지은 연유에 대해 외부에서 차를 마시다 보니 티끌이나 모래 등의 불순물이 찻물을 오염시키므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보아 건물을 구축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차사의 필요성에 의해 후일에 제작되었던 것이다. 이 공간은 가로로 5자인 150cm, 폭으로 2자인 60cm의 아주 작은 규모이다. 이를 지금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0.3평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이다.

이유원의 다시를 비롯하여 다른 문헌자료에도 소옥(小屋)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차생활을 위한 독립건물의 공간으로 다옥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건물의 조영 당시부터 계획하지 않고 차

93) 이유원, 『가오고략(嘉梧藁略)』 「가곡다옥기(嘉谷茶屋記)」 권12.

생활을 통해 필요에 의한 독립공간을 추후에 설치했다는 것은 차생활이 갖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측면이다. 더욱이 현대의 차문화 공간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용어이며 상업적인 공간에도 적합한 용어이다.

②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 : 다실(茶室)

주거적 건축물의 용례와 문헌자료 내 차문화 공간의 명칭으로 도출한 용어 중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으로는 실(室), 재(齋), 방(房)을 선정한다. 이 중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재(齋)로 서재를 뜻한다. 서재는 문사(文士), 즉 학문을 하는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차문화 안에 자리 잡은 공간이다. 서재는 사랑채에 속한



<그림 14> 책거리

출처:서유구(저) 안대회(역)(2018)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교류가 일어났던 장소이다. 이는 목적성에 의해 공간을 복합적으로 이용했던 합목적 공간 사용의 예이다. 특히 서재에 대한 묘사의 기록물이 상세한 까닭에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조선시대 문인들 사이에서는 서재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시문을 짓고 서화와 음악을 즐기며 서책, 분재, 수석 등을 감상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독서와 집필의 공간으로써 고동기물과 문방청완류를 수집, 보관하는 고동서화각이자 친한 벗과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는 지적 공간이었던 것이다.⁹⁴⁾ 서재 내에서 사용하던 기물들에 대한 기록물인 ‘책가도’ 또는 ‘책거리’에서는 서재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림 14>와 같은 책거리에서 선비들의 사랑방이나 서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포갑

94)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조선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38, 2010, p.296.

에 싸인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 및 꽃병, 악기, 술병, 차 도구 등 선비들의 고아한 취향을 담은 물건들이 꽂혀 있는데 서재에 있어야 하는 물건들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⁹⁵⁾ 조선시대 책거리 그림의 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책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의 책거리는 중국 청대 회화로 부터 연원한다.⁹⁶⁾ 조선에서 그려지기 시작한 책거리에 대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조시대로 정조 7년(1783) 11월 자비대령화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녹취재(祿取才)를 실시하였는데 그 화제(畫題) 가운데 책가(冊架)와 책거리(冊巨里)가 등장한다.⁹⁷⁾ 책거리 내에는 서재에 사용된 물품들이 표현되어 있고 차문화와 관계있는 다구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허균(1569~1618)의 다시 중 <누실명(陋室銘)>에 묘사된 서재를 통해 크기와 구성을 엿볼 수 있다.

房闕十笏 南開二戶 방 너비는 십홀쯤인데 남으로 지게문 둘을 내니
 午日來烘 旣明且煦 한낮 별 들이쬐여 하마 밝고도 다사롭네
 家雖立壁 書則四部 집이라야 벽만 섰으나 책은 그래도 갖추었네 ⁹⁸⁾

위의 내용에서 방의 크기를 10홀이라고 했는데 10홀은 홀(笏)을 10개 이어놓은 사방 10척(尺) 정도의 넓이로 3평 남짓 하는 작은 방을 뜻한다. 여기에 책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학문에 정진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서재는 학문에 정진하기 위한 최적화를 피하며 차문화 및 문화적 취미생활을 위해 마련된 합목적 공간 활용의 예시가 된다.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은 재(齋) 외에도 실(室)과 방(房)이 있는데 이들을

95)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앞의 책, p.61.

96) 신미란,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5.

97) 강관식, 조선후기 '民書'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小考, 미술자료, 66, 2001, p.79.

98) 허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1, 시부1 <陋室名>,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종합하는 용어로 실(室)을 꼽는다. 재(齋)는 차 영역과 학문의 영역이 중첩된 공간이며 방(房)은 실(室)보다는 공간 활용이 소극적이다. 방(房)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 벽으로 막아 만든 칸의 의미가 강하고 실(室)은 건물 내부의 단위 공간으로 칸의 구획보다 포괄적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서재는 양반가의 사랑채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이므로 실(室)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곳의 기본 활용은 학문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기에 재(齋)라는 목적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재(齋)의 일반성을 실(室)로도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도 차문화 공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실을 합목적인 차문화 공간의 용어로 제시한다. 현재 대다수의 차 관련 공간은 독립적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 내 단위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일상영역 내 공용 공간

채제공의 『번암집(樊巖集)』 권 13 <서진사택을 방문하여>에 등장하는 중당(中堂)은 당상(堂上)의 위아래 중간으로 대청마루 등지의 중심을 뜻한다. 이를 일상영역의 주거 공간 내 공용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영역의 하나로 보고 다회나 모임 등을 위한 공간사용의 예로 들 수 있다.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상영역과 비일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미의식의 뿌리와의 같은 잠재양식으로 공간의 유한성을 해석하는 생활방식의 무한성이다.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담겨있는 일상영역에는 한국인만의 의식의 전형이 설정되어 있고, 비일상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종합하여 특수한 미의식이 발현되었던 것이다. 특히 비일상적인 사건을 위한 특수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유연성이 발휘된다. 일상영역 안에 이루어지는 반복된 일상생활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어나며 시간성을 가진다. 즉 생활행위, 생활공간, 생활시간의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앞에 설명한 차문화 공간 중 다옥과 다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일상영역에 설정된 비일상생활은 특정한 절기, 집안의 대사 때에 일어나며 가변적이고 특수한 의례, 놀이, 여가, 노동 등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⁹⁹⁾ 이때 차문화 공간의 비일상영역의 하나로 중당, 즉 대청을 들 수 있다. 대청은 마루의 일종으로 청(廳)이라고도 하는데 중당은 대청의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청은 보통 쓰임에 따라 대청, 빛마루, 누마루, 쪽마루, 들마루 등이 있다. 유심히 살펴볼 장소는 대청과 누마루이다. 대청은 마루 중에도 넓은 마루를 뜻하며 이를 크게 만드는 이유는 제사와 같은 의례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과 방 사이를 통과하는 출입의 역할을 한다.¹⁰⁰⁾ 이와 같은 대청은 집의 중앙에 위치하며, 특히 사랑채에 속해있는 사랑대청은 양반가 문벌 간의 소통과 취미의 교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다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인문의 <대택아회도>를 살펴보면 사랑대청에서 남성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 누마루는 독립건물이거나 사랑채를 부속하는 연결 매체 역할을 하는 마루의 한 종류로 그 입면요소로는 기둥과 창호를 들 수 있다. 대체로 누각(樓閣)은 창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누각과 정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 누각은 누(樓)와 각(閣)을 합쳐서 말하는 건축물의 용어로 누(樓)는 대개 이층집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일층바닥은 자연 상태 또는 기단을 남겨두고 그 상층에 마룻바닥이나 온돌바닥을 만들어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인공경관의 월경 관람을 목적으로 한다. 누는 일반적으로 장방향의 평면으로, 지면에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누하주(樓下柱)를 세워 바닥으로 하여 중층이 된다. 각(閣)은 누와 비슷하여 혼용되기에 누각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누와 마찬가지로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에 건립하며 일

99) 이용석, 일상과 비일상의 측면에서 본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29.

100) 김왕직, 앞의 책, pp.247-255.

반적으로 장방형 평면이다. 누가 장중한 느낌이라면 각은 날렵한 모습을 띤다. 정자는 사대부가나 공공건축의 한 부속채 또는 단독으로 건립된다. 보통 사대부가의 후원 동산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정, 넓은 들판, 연못가, 시냇물 가, 바닷가 등지에 세우는 건축물이다.¹⁰¹⁾ 실제로 누, 각, 정자를 표현한 다화나 다시들이 많이 눈에 띈다. 차경을 하던 한국인의 합리적이고 자연 친화적 사고가 반영된 것인데, 이들 역시 차문화 공간에 속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상영역의 미적 체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누, 각, 정자에 대해서는 심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인문의 <대택아회도>, <누각아집도>에도 누, 각, 정자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수 있다. <대택아회도>의 왼쪽 편에 있는 건축물은 누로 보여 진다. 이는 바닥에서 지면이 떨어져 있어서 사대부가에 부속된 정자로 보이기도 하고 누각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호함이 있지만 바닥면의 장방형의 평면과 팔작지붕의 형식으로 보아 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누각아집도>는 다화의 제목이 누각임에도 실제로는 누각의 모습보다는 사랑대청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장방형의 평면이면서 기단을 높여 바닥을 돋우었으나 하부가 들려 있지 않으며 주변에 창이 있어 누각의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규모 있는 반가에서는 사랑채, 사랑마루, 누마루를 동일 채로 구성해 사용하기도 해서 중당은 사랑마루이거나 누마루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누마루는 사랑마루 보다 시야의 확보가 높으므로 차경적 요소가 더 강하며 관조할 수 있는 장치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채제공의 한시의 중당이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랑채에 부속한 누마루일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101) 주남철, 앞의 책, pp.456-457.



누(樓):광한루
출처:한국관광공사



정자(亭子):부용정
출처:주남철(2010)



누마루:박영효 가옥
출처:주남철(2010)

<그림 15> 누, 정자, 누마루의 비교

2) 철학적 요소

(1) 인문 사상적 배경의 영향

은말주초에 전래된 고대 사상. 진한시대에 들어온 경학(오경사상), 여말선초에 들어온 송대 성리학(주자사상), 조선후기에 들어온 청조의 실학사상 등의 유학 사상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정신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¹⁰²⁾ 유학 사상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도입을 시작으로 심도 높은 문화로 발전되어 나갔다. 조선시대의 차문화 공간을 이용한 활동의 주체에게도 영향을 미친, 철학적으로 깃들여져 있던 사상에 대해 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다. 미나 예술은 유형에 의한 관여로부터 기호적 성격을 띠지만 그 유형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하므로 철학적 사상을 조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조선 후반에 작용한 실학적 사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실용적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 철학을 통해 이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인도하려는 의지로 해석하고 이러한 실천의지는 활동주체의 역할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내재된 현실시선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적 요소를 확인하려

102) 김강녕, 제4장 유학사상의 유래와 변천, 민족사상, 3(2), 2009, pp.127-128.

는 것이다.

① 인본주의(人本主義)

조선 왕조는 정치권력과 유학이념의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를 보여준다. 조선전기에는 정치권력이 이념을 압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 조선왕조는 현실 정치가 아닌 이념 정치에 매몰되었다. 왕들 또한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학자들과 같은 수양을 강조하기도 했다.¹⁰³⁾ 정치철학적으로 성리학이 핵심 사상의 기저를 이루었다. 성리학은 우주, 자연,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중점에 두고 새로운 우주론과 철학적 세계관을 부여한 유학의 한 갈래이다. 이는 당(唐)말의 한유(768~824)로부터 심성 수양의 집중을 위해 시작이 되었고 주돈이(1017~1073)의 『태극도설』 집필을 통해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호(程顥)·정이(程頤)형제의 이학(理學)을 남송의 주희(1130~1200)가 집대성하면서 완성이 되었다. 성리학의 중심내용으로는 3가지를 꼽는데 바로 태극론, 이기론, 심성론이다. 태극론은 세계관을 태극으로 설명하는 원리로 무에서 유를 낳는 것이며, 이기론은 형이상학적인 이(理)와 형이하학적인 기(氣)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심성론은 심(心), 성(性), 정(情)을 통해 인간세계를 설명하는 원리로 이때 이(理)가 사단(四端)이고 기(氣)가 칠정(七情)이다. 이황(1501~1570)은 사단칠정에 대해 이가 발하여 기가 이에 따르는 것은 사단이고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타는 것은 칠정이라고 했다. 그는 사단이 이에서 발하므로 선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하므로 악하다고 주장하여 사단과 칠정을 철저히 분리했다. 이에 반해 이이(1536~1584)는 본질적으로 사단과 칠정을 하나로 설정했다.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칠정으로

103) 강신주, 앞의 책, p.1112.

불 때 칠정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며 칠정에 포함되어 있는 선한 정(精)만을 사단이라고 보았다.¹⁰⁴⁾ 두 논리는 양분되어 추종하는 무리들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이 벌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논리의 귀결점은 지적한대로 수신인 것이다.

사단(四端)은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 상(上)편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네 가지 마음을 가리킨다. 맹자에서 주희로 이어지면서 이 마음은 본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칠정은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등장하는데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의 7가지 감정을 말한다. 이는 배우지 않아도 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칠정에서 사단은 윤리적인 감정이고 선의 논리이며, 칠정은 자연적인 감정이고 현실성의 논리이다.¹⁰⁵⁾ 사단칠정에 대한 대립구도는 이황과 이이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지만 그들이 이견을 내는 가운데 공통의 목적은 수신을 위한 당위성에 필요한 사상임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유학의 대명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신인 것이다. 앞서 사단칠정에 대한 이이의 사상은 후학인 성호 이익(1681~1763)에게 전해져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명말청초(明末清初) 때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사회에 서양 과학이 수용되었고 초기 실학파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이익은 실학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⁰⁶⁾ 결국 사단칠정에 대한 논의는 실학사상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실학이라는 말은 중국의 역사가 반고(班固: 32~92)의 『한서(漢書)』 「하간헌왕전(河間獻王傳)」에 수록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약칭으로 ‘修學好古 實事求是’

104) 정영호,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 사상으로 본 공간조형개념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7-12, pp.21-22, pp.31-32.

105) 강신주, 앞의 책, p.1113.

106) 노항미, 조선후기 실학파의 차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0.

라는 문구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송대에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을 ‘허무의 학’이라 비판하는 입장에서 허학(虛學)이라고 보았던 반면 유학은 현세주의적 성격을 부각시켜서 실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¹⁰⁷⁾

한국의 인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사단칠정의 정신적 실천과제는 결국 실학이라는 현실성과의 교차를 통해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미학에서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미 또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며 차문화 공간의 미학적 관점을 연구함에 있어 인본주의에 입각한 철학사상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② 선비사상

중국 유학에서 군자나 성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선비사상에서 발견된다. 군자나 성인이 학문적 소양과 실천에 집중하는 이미지라면 선비는 학문과 더불어 취미(趣味) 활동을 통해 풍류와 해학을 곁들인 미학적 관점의 활동주체로서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성리학적이념과 사상을 이끄는 대상을 뜻하는 ‘선비’라는 단어는 순수 우리말이지만 한자로 표기할 경우 선인(先人) 또는 선인(仙人)으로 나타난다. 곧고 바른 성품으로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하는 존재로 고구려의 선배(先輩)제도, 신라의 화랑(花郎)제도, 백제의 무사도(武士道)를 통해 발전되었다.¹⁰⁸⁾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선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거나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로 정의된다.¹⁰⁹⁾ 이것은 선비가 직업적 소명의 계층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상

107) 박혜란,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7. ‘수학호고 실사구시(修學好古 實事求是)’ : 학문을 닦으며 옛 서적을 좋아하여 실제의 사실에서 옳은 것을 찾았다.

108) 윤지은, 조선시대 선비주택의 사랑채 거주환경의 구성요소와 생활공간의 복원 가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3.

10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적 인간형의 실현을 위해 가공되어짐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의(汎意)적 의미로 간주한다.

조선전기에는 자기가 몇몇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믿음으로 수신과 겸양을 위해 노력했으나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지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났다.¹¹⁰⁾ 독서와 학문에 매진하는 선비는 수신(修身)과 심상을 발전시키는 자기수양(修養)에 힘쓰는 가운데 때때로 억눌린 기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유와 운치의 풍류적미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은 선비들 간 취미생활의 교류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집단 지성 문화의 긴밀한 결속력이 발휘되고 차문화도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임이 다양해지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음식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음료의 개념으로 술이나 차가 활용되었기에 차의 수요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다.

(2) 철학적 요소의 사례분석

① 사단(四端)

조선시대 수신을 위한 매체로는 ‘차’의 역할이 컸다. 고려시대 승려들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던 차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사단(四端)에 입각한 수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다시(茶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단은 곧 인·의·예·지로 설명되는데 인은 측은지심으로, 의는 수오지심으로, 예는 사양지심으로, 지는 시비지심으로 통용된다.

사단의 첫 번째 측은지심은 곧 인이다. 박윤목(1771~1849)의 『존재집(存齋集)』 권14, <급천자명 미심청열 한부여린우분상 수견지어시(汲泉羹茗

110) 정민(b), 미처야 미친다. 푸른역사, 2013, p.14.

味甚清冽 恨不與隣友分嘗 遂見之於詩) >에서 측은지심의 인을 발견할 수 있다.

汲取潭泉似許清 샘물을 길어 오매 이다지도 맑으니
松風每愛沸茶聲 언제나 찻물 끓을 때 솔바람 소리 좋아라.
惠山較作尋常品 혜산천의 샘물은 아주 탁월하니
楊子甘辭第一評 양자강이 기꺼이 일등을 양보하지.
澈得三焦消痞滯 삼초를 맑게 하여 체증을 사라지게 하고
洗來兩眼發神精 두 눈을 씻어내어 신정을 발하게 하네.
玉壺縱有瓊華滿 옥 찻잔에 아무리 옥빛 차가 가득해도
恨不分嘗舊友生 벗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 한스럽네.¹¹¹⁾

차를 우릴 좋은 물을 두고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은 벗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 안타까움의 근원은 벗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자는 벗이 그 물맛을 확인할 길 없는 것에 대해 본인이 대신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통해 상대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義)는 수오지심이다. 이는 박제가(1750~1805)의 시 『정유각집(貞蕤閣集)』, <원소이수(元宵二首)>에서 드러난다.

元宵燭有花 정월 보름 촛불을 피워 놓고서
匡坐自煎茶 바로 앉아 나 혼자 차를 끓이네.
努力日三省 힘써 하루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逍遙天一涯 하늘 한 구석에서 노니는구나.
神之寧毅汝 정신의 편안함으로 너를 길러서
國耳未言家 나랏일뿐 집안일은 말하지 않네.
昔夢知何兆 지난번 꿈의 조짐 어이 알까나

111) 박윤목, 『존재집(存齋集)』 권14,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金尊耀落霞 金 술잔 지는 놀에 환히 빛났네¹¹²⁾

하루의 일과를 반추(反芻)하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수신의 미, 즉 차한잔을 앞에 두고 반성과 더불어 자아의 발전에 힘쓴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수오지심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의 근원은 심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심상은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 실천의 목적을 위해 중시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禮)인 사양지심이다. 채제공의 <방서진사가(訪徐進士家)>의 시의 내용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中堂迎客靜無譁 중당에서 손님 맞는데 조금도 시끄러움이 없으니
易識寧州第一家 영주에서 제일가는 가문임을 쉬이 알겠네.
椅子東西據設禮 동서로 마주 앉아 인사하니
小童擎進雨前茶 어린아이가 우전차를 올리네¹¹³⁾

손님을 맞이하는 융숭한 대접은 다동이 올리는 우전차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일가는 가문의 자손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교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당의 설정이 중요한데 여러 명에 대한 접객이 아닌 손님의 지성을 단독으로 교유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라는 표현이 채제공의 내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사양지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미를 확인할 수 있다.

시비지심으로 지(智)는 이민성(1570~1629)의 『경정집(敬亭集)』 권7, <봉차석루상공(奉次石樓相公)>의 시에서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12) 박제가, 『정유각집(貞蕤閣集)』, <원소 이수(元宵二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13) 채제공, 『번암집(樊巖集)』 권 13 <방서진사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作客燕山歲月多 연산의 나그네로 오랜 세월 지났는데
 鏡中霜鬢奈吾何 거울속의 귀머리 어이하여 희었는가
 焚香讀易恁麼坐 향 피우고 『주역』 읽으며 현묘한 것 생각하고
 啜茗談詩隨意過 차 마시고 시 읊으며 뜻대로 지낸다네.¹¹⁴⁾

관록이 쌓인 노인이 주역을 읽으며 현묘함을 생각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다시이다. 현묘한 것을 생각한다는 내용에서 세상의 시련과 고뇌 안에 경험
 철학적 입장이 녹아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세상의 시시비비(是是非非)에 대
 한 깊은 숙고를 통해 발현되는 지혜의 현명함이 음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 시비지심을 위한 분별심의 향상에 차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는 부분이다.

사단은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철학적 표상이며 실천적 과제였다. 즉 이치
 를 깨닫고 실천을 중용(中庸)하게 하는 수신(修身)을 위한 매개체인 ‘차’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수신, 중용, 겸양의 미적 범주가 표현되는 것
 이다. 이러한 미적 범주는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면서 유학자들의 고유한
 심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예술작품은 선비라 불리는
 유학자들의 창작물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와 같은 철학 사상에 의해 미학
 적 관점이 생성되었다고 본다.

② 명창정계(明窓淨机)와 교유

명창정계(明窓淨机)는 ‘밝은 창과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이상적인
 선비의 서재 풍경이다. 밝은 창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백색의 주변 환경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함을 선사한다. 이는 순백의 미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순수하고 밝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김종직(1431~1492)의 『점

114) 이민성, 『경정집(敬亭集)』 권7, <봉차석루상공(奉次石樓相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itkc.or.kr.

필재집(佔畢齋集)』 권2에 <즉사정자고 김뉴(卽事呈子固 金紐)>에서 백색 의복의 상태를 엿볼 수 있다.

苧袍如雪便欹枕 흰 모시 도포는 누워 있기에 편하고
紗帽含風好喫茶 사모에 바람 불어 차 마시기 좋구려¹¹⁵⁾

이 다시는 과거 급제한 김뉴에게 보내는 축하의 시로 여기서 흰 모시 도포를 입은 김종직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흰 색을 가까이 했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다.

김상용(1561~1637)의 『선원유고(仙源遺稿)』 하편에 <재용전운(再用前韻)>에도 일상생활에서 활용된 흰색 의복이 표현되어 있다.

烏紗白葛稱閑身 흰 갈포 사모 쓰고 몸 한가로워지고
斗室儻然迥絕塵 작은 집에서 아무 구애됨 없이 세속과 멀리 있네.
萬軸牙籤爲勝友 수많은 책속의 가 벗이 되고
一甌新茗當佳人 한 사발 햇차는 고운 사람보다 좋다네¹¹⁶⁾

위의 다시들을 통해 일상 속에 선비의 주변에 머물러있는 순백의 미를 살펴볼 수 있다.

밝은 창과 깨끗한 책상이라는 표현은 선비의 정리 정돈하는 정연한 태도가 묻어나는 측면이다. 이는 선비 자신의 내면을 투시하는 것으로 청아(清雅)한 미가 들어난다. 조선 중기 문인 허균(1569~1618)이 펴낸 『한정록(閑情錄)』 <청공(淸供)>편에 은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산거에 필요한 도구가 열거되어 있다. “경서, 붓, 종이, 벼루 등은 늘 곁에 두어야 하나 문방구를 보기 좋고 취미에 맞추기 위하여 시장처럼 벌여 놓으면 아취를 잃게

115)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佔畢齋集)』 권2 <즉사정자고김뉴(卽事呈子固金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16) 김상용, 『선원유고(仙源遺稿)』 下 <재용전운(再用前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되므로 정돈법에 맞춰 늘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¹¹⁷⁾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운지>편에도 서재에 대한 묘사가 있다. 이것은 『준생팔전(遵生八牋)』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서재는 밝고 정결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활짝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서재가 밝고 정결하면 심신을 상쾌하게 만들지만 서재가 너무 크거나 활짝 개방되어 있으면 시력을 상하게 한다.....(중략).....¹¹⁸⁾

장유(1587~1638)의 『계곡집(谿谷集)』 25권 <비 오는 날 기암자에게 부친 시(雨中寄崎庵子)>에도 선비의 책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

詩牀及碁局 책상 하나에 바둑판 하나
藥爐兼茶盃 약 달이는 화로와 차 따르는 그릇 몇 개
自足了生涯 이거면 한평생 충분하리니¹¹⁹⁾

명창정제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점철(點綴)된 사상은 다른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집단 지성의 ‘선비’ 라는 위치를 확고하게 하였다. 교류하는 과정에서 감지되는 그들만의 풍류의 미는 차문화 공간에서의 모임의 규모를 표현하는 기록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인문의 <대택아회도>는 차문화에 관한 다각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비들의 교류도 포함되어 있다. 정원에는 학 두 마리가 한가롭게 노닐고 대저택의 담 옆에는 주인의 것인지 손님의 것인지 모르는 인력거가 놓여 있고 선비들은 모여 시를 읊고 차와 음악이 함께 고아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¹²⁰⁾

117) 이나연, 조선시대 회화의 서안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7.

118)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앞의 책, p.53.

119) 장유, 『계곡집(谿谷集)』 권25 <비 오는 날 기암자에게 부친 시(雨中寄崎庵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20) 이정아, 앞의 논문, p.73.

최숙정(1433~1480)의 <여한인수범주 등신록사동대(與韓仁叟泛舟 登神勒寺東臺)>에는 벗과 함께 신록사 등대에 올라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속세의 번민 속 답답함을 털어내는 풍류적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江水深深岸麥黃 강물은 깊디깊고 강가 보리는 누런데
扁舟擊楫泝流光 조각배 노를 저어 물결 거슬러 오르네
百年古碣開昏眼 백 년의 옛 비석은 흐린 눈 트이게 하고
一椀眞茶洗鬱腸 한 사발 좋은 차는 답답한 속 씻어 주네
爽似騎鯨過海去 상쾌함은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듯
飄如駕鶴入雲翔 날아올라 학을 타고 구름 속을 들어온 듯
問禪不學暉西倒 선을 묻다가 서산에 해 지는 줄 모르고
歸路春風漾小航 돌아오는 길 봄바람에 나룻배 출렁대네¹²¹⁾

사상의 중요함은 인간의 실천의지에 따른다. 선비의 명창정쾌를 통한 순백, 청아의 미와 교유를 통한 풍류의 미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천가능성이 없거나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상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인간의 의지력은 진리 탐구를 습득한 후 얻는 깨달음을 세상에 펼칠 때 발현되는 것이다. 인문 사상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철학적 요소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의 선비를 통해 차문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3) 관계적 요소

(1)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

자연 환경적 배경으로 말미암은 건축적 요소, 인문 사상적 배경에 의해 발전하는 철학적 요소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한 관계적 요소로 종합되어

121) 최숙정, 『소요재집(逍遙齋集)』 권1 <여한인수범주 등신록사동대(與韓仁叟泛舟 登神勒寺東臺)>,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진다. 즉, 사회 문화적 배경은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인간의 설정 방식대로 세상만물을 해석하기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용적 자질을 확장하게 하는 배경인 것이다.

조선시대 이념인 성리학에서 형이상학(形而上學)과 형이하학(形而下學)으로 나눌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理)와 기(氣)이다. 이때 기와 관련된 것이 관계성의 요소이다. 기는 서양의 형이하학인 질료(質料)와 차이가 있다. 질료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유형의 존재를 살피는데 비해 기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확인이 모호하더라도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무형까지 인식하는 것이다. 가시적이거나 표면적인 시선으로만 보려 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형과 무형의 존재인 자연과 인간, 그 외의 만물에 대한 형이하학(形而下學)적 접근을 통해서도 진정한 미의식이 정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는 미학적 관점이 차문화 공간 안에서 종합되어 진다.

① 접화(接化)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발달한 매개적 성격은 접화(接化)와 조화(調和)라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접화와 조화는 유의어이나 관계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접화에서 접(接)은 잇다, 접붙이다, 접촉하다 등 무엇인가가 변화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한다. 화(化)는 되다, 교화하다, 달라지다 등의 의미로 접화라고 명칭할 때 그 핵심은 회의문자인 ‘化’에 있다. 회의문자란 두개 이상의 한자를 합할 때 그 뜻이 더해져서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문자로 化는 사람(人)이 모양을 바꿔 다른 사람(匕)이 되는 ‘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둘 이상의 관계가 만났을 때 그 만남 자체가 결론이며 이미 시도 자체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출할 것을 예상한다. 접화는 $A+B \rightarrow C$ 라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이때 C는 A의 존재함과 B의 존

재함이 함께 포함되어 $C = \text{작은}A(a) + \text{작은}B(b)$ 로 표시할 수 있다.¹²²⁾

조선시대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접화가 빈번히 일어났고 특히 조선후기에는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졌다. 접화가 생겨난 사회적 원인은 외세에 의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충돌을 통해 문화에 대한 물리적 수용에서 비롯되었다. 지배층의 상위문화와 피지배층의 하위문화라는 이분적 분리가 근대 문물의 도입을 통해 변하게 되었는데 외래 교류가 용이했던 지배층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유입됨으로써 상위문화가 변화되었고 하강하는 하위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대 문물로 인해 발전된 사상인 실학을 통해서도 자주적이고 고유한 미가 발전되게 되었다. 접화는 화합하는 순간이 이미 기발(既發)이므로 관계에 의한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다. 이는 사회 문화적 상관관계에 의해 심화되며 차문화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접화적 관계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② 조화(調和)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화의 뜻도 살펴보면 조(調)는 조절하다, 적합하다, 어울리다, 보호하다 등의 의미로 상호보완의 역할이 엮보이는 한자이다. 화(和)는 화목하다, 화하다, 합치다, 같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에도 ‘和’가 의미의 핵심이다. ‘和’는 형성문자이다. 형성문자란 두 한자를 더하여 새로운 한자가 되는데 한쪽은 음을 한쪽은 뜻을 나타낸다. ‘和’는 禾 + 口로 앞의 禾가 음으로 남아 ‘화’라 하고 禾의 의미인 벼를 수확해 여러 명이 나눠 먹는다는 ‘口’의 의미가 남아 화목하다 등의 뜻이 생성된다. 이는 $A+B \rightarrow A+B$ 인 것이다. 결국 접화와 조화는 무엇인가가 서로 관

122) 최광진, 앞의 책, p.99.

계를 맺게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화는 기발이나 미발(未發)이 목적이 아닌 동일한 요소들의 질서와 균형의 영역인 것이다.¹²³⁾

하늘, 우주, 신 등으로 대변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작은 국가의 기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늘을 숭상하고 제사를 올리며 주변 사물에 깃들여있는 신(神)의 영역에 정성을 다했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그것이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이 자기 부족의 안위를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원시 종교로 단군신화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도참사상이나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뿌리남아 있다. 도참사상이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것에 목적을 둔 반면 풍수지리설은 지형의 위치나 모형을 통해 길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다. 이는 서양이 자연을 가공하려던 자세와는 달리 자연을 통해 인간 삶에 질서와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조화이다. 조화가 도참사상, 풍수지리, 음양오행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 그 세 가지 사상이 탄탄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원시사상에는 조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질서와 균형을 유지했던 것이다. 우열의 사고가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려 하는 공존의 의미가 있으며 그로인해 문화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2) 관계적 요소의 사례분석

① 자주적 접화

123) 최광진, 앞의 책, p.99.

조선전기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차는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차의 역할인 정신적인 면과 양생적인 쓰임에만 집중하여 형이상학적인 차의 역할에 주목했을 뿐 차의 맛, 향, 운치 등의 기(氣)로써의 형이하학적 요인이 조명받지는 못했다. 전술(前述)했듯이 병자호란 이후 자주적 차문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실학사상이 널리 퍼진 후 차의 실리적인 역할이 조명되면서 차문화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이 무렵 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올바르게 맞음에 대해 정약용은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는 『아언각비(雅言覺非)』 차(茶)에서 고유한 찻잎으로 끓인 차가 아닌 차는 함부로 차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¹²⁴⁾ 중국에서도 다른 혼합재료에 차를 넣고 끓여야 차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찻잎이 없이 다른 재료로만 끓인 것을 차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정약용의 지적을 통해 살펴볼 것은 중국에서 찻잎만을 전용하지 않는 음료적 차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그 제작방법은 두 재료를 넣고 끓여서 만든 혼합차이다. 반면 이운해의 『부풍향다보(扶風鄉茶譜)』를 통해본 한국의 혼합차 생성과정은 한국인의 접화 정신이 돋보이는 것으로 중국의 혼합차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부풍향다보』는 황윤석(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라는 일기에 인용이 되어 있다. 인용 뒤에는 1771년 10월 25일자 기록에 황차 두 첩을 1전1푼에 샀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첩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우나 당시 민간에게 거래되는 차의 가격을 알 수 있는 흔하지 않는 기록이다. 『부풍향다보』는 부안현감으로 부임한 필선 이운해가 그의 종숙부와 함께 만든 다서이다.¹²⁵⁾ 『이재난고』에 수록된 『부풍향

124) 정약용(저) 정혜림(역),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pp.58-59.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茶)자를 탕약·환약·고약, 마시는 약과 같은 모든 약물 가운데서 한 가지만 달이는(熬) 것은 다 차라고 부른다. 생각자, 굴피차, 모과차, 상지차, 송절차, 오과차 라고 하여 관습적으로 항상 쓰는 말이 되었는데 잘못이다. 중국에는 이런 법이 없는 듯하다.....(중략).....이는 다 차냄비 속에 측백열·창포잎·감람잎 등을 섞어 끓이기 때문에 차를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이지, 한 가지 특별한 것만 달여서 차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인 것이 아니다.”

125) 송계소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2, 돌베개, 2011, p.50.

다보』는 <서문>, <다본(茶本)>, <다명(茶名)>, <제법(製法)>, <다구(茶具)>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는 원 저자인 이운해에 관한 추기(追記)가 실려 있다.

『부풍향다보』에 나타난 자주적 접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체의 증상에 맞는 처방에 따라 주치를 두어 작설차에 7가지 약재를 조제해서 만든 기능성 향차이다. 이 같은 기능성 향차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처방에 의한 전문성을 지닌다.

『부풍향다보』에서 제시한 증상에 따른 약재의 효능은 허준(1539~1615)이 1613년에 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때의 차는 음용의 개념보다는 약용의 의미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유동훈(2014)의 연구에서는 『동의보감』과 『부풍향다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초의 성분을 비교하였다. 그는 차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다본>의 내용이 『동의보감』의 <고차(苦茶)>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다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재도 『동의보감』을 참조했을 것으로 논의하였다.¹²⁶⁾ 다음의 <표 9>는 유동훈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작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 일반적인 혼합차의 경우에 서처럼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넣고 끓여 달여진 액체 형태를 마시는 수준과는 다르다. 이것은 <제법>에 구체적인 설명으로 남아 있다. 먼저 6냥 되는 덩이차에 제시한 약초 각 1돈씩을 함께 넣고 물 2잔을 붓고 물이 반쯤 줄도록 줄인 후 덩이차가 풀어지면서 약초의 향이 배도록 하는데 이때 차와 약초를 고루 섞어 불에 쪄어 말린다. 차가 바짝 마르면 포대에 넣고 건조한

『이재난고(頤齋亂藁)』, 권19, 1771년 10월 25일 25일 임진일 아침, 맑다, 황차 두 첩을 샀는데 가격이 1전1푼이다. 달여 마시고 땀을 내니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없었다.

126) 유동훈,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차의 약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4, pp.76-79.

곳에 놓아둔다. 마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차 1돈을 넣고 반드시 진하게 우려내어 아주 뜨겁게 마시라고 되어 있다.¹²⁷⁾

단순히 맛을 보완하기 위해 차에 다른 재료를 섞었던 개념이 아닌 증상에 따른 약재를 혼합하는 과정과 기존의 방식처럼 함께 끓여낸 것이 아닌 약효가 충분히 베이도록 제작했던 제법을 자주적 접화로 볼 수 있다. 즉 새롭게 향약(鄉藥)이라는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표 9> 『부풍향다보』 증상과 약재에 대한 『동의보감』의 효능 *

부풍향다보		동의보감에 따른 효능
증상	약재	
풍 맞았을 때 (風)	감국 / 창이자	(감국은 국화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성질이 평순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며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5맥을 통하게 하며 팔과 다리를 잘 쓰게 하고 풍으로 어지러운 것과 두통을 다스림. 또한 눈의 혈을 도와주고 눈물이 나는 것을 멎게 하며 머리와 눈을 시원하게 하고 풍비와 습비를 치료한다고 풍증에 약효가 있음.
추울 때 (寒)	계피 / 회향	(계피는 계수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 성질은 몹시 따뜻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조금 독이 있음. 속을 따뜻하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간과 폐의 기를 고르게 하며 광란으로 쥐가 나는 것을 낫게 하며 온갖 약 기운을 고루 잘 퍼지게 하며 유산시킬 수 있음.
더울 때 (暑)	백단향 / 오매	(오매는 푸른 매실을 껍질을 벗겨 짙불 연기에 그을리어 말린 것)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음.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노열과 골증을 치료하며 술독을 풀어줌.
열날 때 (熱)	황련 / 용뇌	(황련은 갯쟁이 풀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독이 없음. 눈을 밝게 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멎게 하며 간기를 진정시키고 열독을 없앴.

127) 정민(a), 앞의 책, pp.28-39.

감기 일 때 (感)	향유 / 곽향	(향유는 꿀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음. 곽향으로 배가 아프고 토하며 설사하는 것을 치료하며 수종을 내리 게 하고 더위 먹은 것과 습증을 없앴.
기침할 때 (嗽)	상백피 / 굴피	(굴피는 감귤의 껍질을 말린 것)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고 가슴에 기 가 멎친 것을 치료함.
체했을 때 (滯)	자단향 / 산사육	(산사육은 산사나무의 열매인 산사자의 씨를 제거하고 말린 것) 식적을 삭히고 오랜 체기를 풀어 주며 기가 몰린 것을 잘 돌아가게 하고 적피, 담피, 혈피를 삭히고 비를 든든하게 하며 가슴을 시원하게하고 이질을 치료하며 종창을 빨리 끓게 함.

* 출처 : 유동훈(2014)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한국의 다식도 접화를 통해 생성이 되었다. 다식에 대한 기록은 성호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권6 <만물문(萬物門)>에 전해진다. 조선후기의 실학은 이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수광(1563~1628), 김육(1580~1658), 한백겸(1552~1615) 등을 거쳐 유형원(1622~1673)에 이르러 학(學)으로 자리하고 이익에 이르러 학파로서의 존재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⁸⁾ <만물문>의 기록은 실학사상이 접화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덩이차를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이 한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곁들이는 다식으로 새롭게 해석된 것이다.

우리나라 사전(祀典)에는 다식이라는 게 있다. 쌀가루를 꿀에다 섞어 멍쳐서 나무통 속에 넣고 짓이겨 동그란 떡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에게는 이 다식이란 이름과 그 뜻을 아는 이가 없다. 나는, “이 다식이란 것은 송(宋) 나라 때 대륙

128) 박혜란, 앞의 논문, p.16.

단(大龍團)과 소룡단(小龍團)이란 떡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중략).....어떤 집은 흑 밤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식을 박아 쓰기도 하는데, 물고기와 새·꽃과 잎처럼 예쁘게 만들기도 하나, 용단(龍團)에 비하면 점점 잘못된 것이다. 모난 그릇이 모나지 않게 만들어지는 일[觚之不觚]은 무슨 물건인들 그렇지 않겠는가?¹²⁹⁾

『부풍향다보』와 『성호사설』의 경우처럼 어떠한 현상이 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자주적인 미의식이 생성되고 미적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 접화군생(接化群生), 즉 모든 군집은 만나서 변한다는 뜻처럼 관계적 성격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다.

② 취미(趣味)활동의 오감적 조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五感)은 차를 통해 모두 체험이 가능하다. 차를 통해 일어나는 공감각적 기운은 조화를 통한 관계성에 의해 촉발된다. 인간의 감각적 지각을 통해 체득한 것이 모여 총체적 상(象), 즉 미의식을 만들고 인간 내면에 자리하게 된다. 신체기관을 통한 오감의 체득은 단편적으로 차 영역만이 아닌 차문화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다방면의 예술적 취미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처럼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조화이다. 조화는 $A+B \rightarrow A+B$ 라는 직렬식 연결방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감적 조화를 통해 발생하는 차문화는 영역의 서열이 아닌 활동 영역 자체의 다양성에 의미를 둔다.

기록물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차문화 공간에서 행했던 취미활동을 살펴보면 차 마시기를 기본으로 술 마시기, 향 피우기, 거문고 타기, 바둑 두기, 책 읽기, 조망(眺望)하기, 글쓰기·그림 그리기, 예술품 감상하기, 담소

129) 이익, 『성호사설(星湖僿說)』 권6 <만물문(萬物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談笑) 나누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 문헌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해 다음의 <표 10>으로 정리하였다.

<표 10> 문헌자료¹³⁰⁾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 내 취미활동 *

취미 활동	문헌자료	수록 내용	오감				
			시 각	청 각	후 각	미 각	촉 각
술 마시기	최연(1503~1549) 『간재집(艮齋集)』 권29 <고요함 속에서(靜中)>	술을 마시느라 술잔을 어루만지네 (斟酒聖賢杯)				●	●
향 피우기	허균(1569~1618)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 권2 <손님을 물리치고 홀로 앉아 북정초객의 운을쓰다 (擣客獨坐用北亭招客韻)>	향 피우고 책을 펴니 고요하여 (經卷爐香寂不諱)	●		●		
거문고 타기	장유(1587~1638) 『계곡집(谿谷集)』 권28 <유양의 최 사군 대용이 서관에서 노닐며 지은 시에 차운 한두수(次韻維楊崔使君大容遊西 澗有題二首)>	거문고 손에 들고 걷는 오솔길 (携琴踏蘿逕)		●			●
바둑 두기	서거정(1420~1488) 『사가집(四佳集)』 권29 <바둑을 마치고 누워서 읊다(碁罷臥吟)>	세상일이 바둑 두기와 같음을 잘 알거니 (極知世事如碁樣)					●
책 읽기	서경덕(1489~1546) 『화담집』 권1 <산거(山居)>	차 마시 뒤 고서나 뒤적일 뿐 (茶餘闕古書)	●				●
조망 하기	권호문(1532~1587) 『송암집(松巖集)』 속집 권3 <개인 하늘을 감상하다(賞晴)>	경관을 즐기니 모두 그림인 듯하네 (幽賞都將畫裏看)	●				

13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글쓰기 · 그림 그리기	홍세태(1653~1725) 『유하집(柳下集)』 권3 <사우당의 모임에서 앞의 운을 따라 여러 공에게 화운하다 (四友堂席上 疊前韻奉和諸公)>	상자에서 책을 뽑아 읽고 (檢書抽玉笈) 비단에다 그림을 그려 내네 (題畫出鮫綃)	●				
예술품 감상	이상적(1803~1865) 『은송당집(恩誦堂集)』 속집 권2 <김소당이 후지산 차 및 차주전자를 선물로 보내왔기에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난색의 주전자가 천하일이니 (卵色瓷壺天下一) 일본사람은 제품이 정밀하고 우수한 것을 가리켜 ‘천하일’ 이라고 한다. (日本人稱製器之 精良者日天下一)	●				●
담소 나누기	김수온(1409~1481) 『식우집(拭疣集)』 권4 <풍기 김공이 찾아준 것에 사례함(謝豐基金公見訪)>	한가한 가운데 담소하며 시서를 논박하네 (閑中談啖駁詩書)		●			

* 출처 :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차 마시기와 병행하거나 차 마시기의 전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취미(趣味) 활동의 오감적 조화를 통해 질서, 균형, 운치, 해학, 멋, 유희 등의 미적 범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풍부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계적 요소가 차문화 공간의 미학적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미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 미적 특성을 통해 미적 배경으로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를 도출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는 미적 요소로는 건축적, 철학적, 관계적 요소를 이끌어냈다.

한국 미학의 도입에 앞서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의 가치체계를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한 미적 특성을 통

해 미적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명제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미학 연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체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자연 환경과 건축적 요소로 도출한 ‘공(空)’, 인문 사상과 철학적 요소로 도출한 ‘인(人)’, 사회 문화와 관계적 요소로 도출한 ‘기(氣)’를 차문화 공간의 미적 명제로 제시한다.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논하려면 외형, 사유, 존재방식이 설정되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적 명제를 통해 한국미를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한국 미학의 가치체계에 대한 논의와 차문화 공간 미학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표 11>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 *

미적배경	배경인자	미적요소	사례	미적범주	미적명제
자연 환경	지형	건축 적	지붕	관조·완만·순수· 유연·탈긴장·질박· 소박·온화·합리적· 절제의 미	공 (空)
	재료		나무 / 돌		
	기후		창호		
인문 사상	인본주의	철 학 적	사단	수신·중용·겸양· 순백·청아· 풍류의 미	인 (人)
	선비사상		명창정제와 교유		
사회 문화	접화	관 계 적	자주적 접화	균형·접화·조화· 해학·멋·유희의 미	기 (氣)
	조화		취미적 오감의 조화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IV. 다산초당 사례를 중심으로 본 차문화 공간의 미학

조선후기 차문화 역사에서 손꼽히는 인물은 단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이다. 그의 호(號)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와는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정약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차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을 통하여 미학의 관점에서 차문화 공간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1. 자연 환경과 건축적 요소로 본 ‘공(空)’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 103-2번지에 소재한 사적 제 107호의 지정물이다. 정약용은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는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의 발각으로 전라도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되는데 이때 머물렀던 공간이 다산초당이다. 원래 다산초당은 윤취서(1688~1766), 윤유서(1690~1732)형제가 건조(建造)했던 곳으로 정약용이 유배를 왔을 때는 그들의 후손인 윤단(1744~1821)이 쓰던 공간이었다.¹³¹⁾ 1936년 이후 관리 소홀로 유실되어 1958년과 1974년에 재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초당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현재 재건된 모습은 기와로 이루어진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복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¹³²⁾

131) 류진경, 茶山과 秋史의 流配地 茶生活의 治癒 效果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6, pp.74-76.

132) 노재현·신상섭·박윤진, 「다산도茶山圖」에 표현된 다산초당의 원형경관 탐색,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2008, pp.32-33.

정약용은 시기별로 다산초당을 묘사한 여러 자료를 남겨서 이를 토대로 주변 배경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다산초당의 조영 시기와 변화과정의 추이, 공간 구성, 배치 특징 및 도입 수종에 관한 내용은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 『다산팔경사(茶山八景詞)』, 『다산십이승첩(茶山十二勝帖)』, 『다산화사(茶山花史帖)』, 『매화(梅花)』, 『일일산보매하(一日散步梅下)』, 『종죽(種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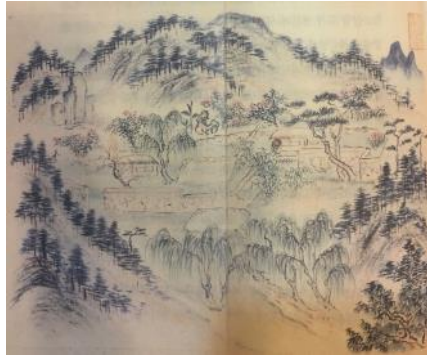
다산의 『백운첩(白雲帖)』과 초의의 <백운동도(白雲洞圖)>도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다산은 1812년 9월에 제자인 초의와 운동을 데리고 월출산 산행 후 백운동에서 하루를 묵는 동안 그곳의 12승사(勝事)를 노래한 13수의 시를 짓고 초의를 시켜 <백운동도>와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를 그리게 하였다.¹³⁴⁾ 초의가 그렸다고 알려져 왔던 <다산초당도>가 정약용이 그린 것이라고 언급한 한문학자 김언종의 견해에 따라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김영환의 <다산초당 외원도(茶山草堂 外垣圖)>가 비교적 상세히 건물의 명칭까지 표기하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산초당도>는 현대의 건축도면의 조감도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주변의 정세와 건물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산초당은 전면 5칸, 측면 2칸으로 5x2=10칸 집이다.¹³⁵⁾ 당시 1칸의 길이는 살림집일 경우 대개 2.4m 정도였으므로 전면 12m, 측면 4.8m를 평(坪)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7평이 되는 규모이다.

133) 최인에, 다산 정약용의 자연관이 원림조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109.

134) 정민(a), 앞의 책, p.566.

135) 김왕직, 앞의 책, p.88.



<그림 16> 초의의
<다산초당도>
출처: 정민(a) (2015)



<그림 17> 김영환의
<다산초당 외원도>
출처: 최인에(2014)

<다산초당도>에는 왼편의 다산초당과 오른편의 동암(東庵)으로 두 채의 묘사가 나타나는데 동암은 부엌이나 뒷간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¹³⁶⁾

정약용이 조성한 다산초당의 주변 경관을 통해서도 자연 환경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관련된 자료로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의 조경에 대한 후반부 내용, 『여유당전서』 제1집 권14 <발택리지(跋擇里志)>가 있다. 또한 주변 조경에 대해서는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의 4경으로 다조(茶竈)·약천(藥泉)·석병(石屏)·석가산(石假山)을 꼽았다. 이 중 차 생활은 다조와 약천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다조는 끓이는 부뚜막이다.

靑石磨平赤字鑄 반반하게 청석 갈아 붉은 글자 새기니
烹茶小竈艸堂前 차 달이는 부뚜막이 초당 앞에 놓였네

136) 노재현·신상섭·박울진, 앞의 논문, p.36.

위에서 다산초당 앞 청색 돌에 붉은 글씨를 새겨 넣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초당 앞에 있는 반석이다. 『다산시첩(茶山詩帖)』에도 다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壘壑小茶竈 마른 벽돌 쌓아 만든 작은 다조는
離火巽風形 이화와 손풍의 형상이라네

누격(壘壑)이라는 마른 벽돌은 불에 굽지 않은 생벽돌을 뜻한다. 다산의 다조는 벽돌을 포개서 쌓아 만든 것으로 아래쪽은 벽돌을 쌓아 올리고 평평하게 갈아 붉은 글자를 새긴 청석을 덮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은 약천에 관한 내용이다. 다산은 “약천은 지정의 서북쪽 모서리에 있다. 처음에는 그저 웅덩이였는데 내가 이를 파자 맑은 샘물이 돌 가운데로부터 솟아났다.” 고 기록하였다.¹³⁷⁾ 이와 같이 초당의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적 배경이 되는 지형, 재료, 기후 등의 영향을 받아 정약용의 미적 경험이 발생하고 차문화 공간으로 다산초당이 자리하게 되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 기거하기 전에 궁궐, 경기·강원 이남의 많은 누정과 별서, 원림을 보았고 스스로 관사나 관청의 마당에 정원을 꾸민 경험을 통해 미를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다산초당 역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정원을 꾸미고 공간에 적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¹³⁸⁾

다산초당의 차문화 공간 명칭에 대한 거론은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5에 <다산화사(茶山花史)>에 나타나 있다.

茶山窈窕橋園西 유자 동산 서편에 그윽하고 예쁜 다산
千樹松中一道溪 천 그루 소나무 속에 흐르는 시내 하나
正到溪流初發處 시냇물이 처음으로 발원한 곳 가면

137) 정민(a), 앞의 책, pp.155-161.

138) 최유리, 자연관이 별서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8.

石間瀟灑有幽樓	깨끗한 바위 사이에 조용한 집 있다네
小池眞作草堂顏	작은 못이 참으로 초당의 얼굴인데
中起三峯石假山	그 중앙에 돌을 쌓아 봉우리 셋을 만들고는
差次百花常繞砌	철 따라서 피는 백화 섬돌을 둘러 있어
水心交纈鷓鴣斑	아롱다롱 자고무늬가 물속에 늘 어른거리지 ¹³⁹⁾

이 시에는 다산초당을 표현한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조용한 집인 유서(幽樓), 즉 은자의 거주지라는 심리적 형상의 표현과 초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은자의 거주지라는 표현에 관련하여 정약용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에 건축에 대한 상세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황상(1788~1863)이 스승인 정약용에게 숨어 사는 이의 거처는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적은 것이다. 이미 정약용은 1793년 수원화성 설계 기술 업적으로 상당한 건축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글에서 보면 정약용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이는 다산초당 내에도 녹아져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황상은 스승이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였다가 강진 대구면의 천개산 아래 백적도에 은자의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¹⁴⁰⁾

<표 12>를 보면 실제 건축물을 짓는 기본 지식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연 환경과 다산초당의 건축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정약용은 거주지의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은 조선시대 조영에 관여한 풍수지리설에 관련하여 보편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세세한 가구 배치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 같은 정약용의 견해가 차문화 공간인 다옥과 다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면 위치 선정이나 방위를 통해 다옥을 짓는 과정을, 가구배치를 통해 다실의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139)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5권, <다산화사(茶山花史)>,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40) 정민(b), 앞의 책, p.190.

있다.

한편 초당이라고 기록한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조선시대 차문화에 관한 문헌자료에 의하면 초당(草堂)이라는 용어가 자주 목격된다. ‘초’는 벗짚 따위로 제작한 지붕을 뜻하는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당(堂)이다. 이는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지개(志概)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당(堂)은 건물의 명칭 중 가장 으뜸인 전(殿)의 아래 하는 등급으로 건물 중에는 상당히 위신이 높은 축에 속한다. 초라한 초가지붕을 한 건물을 당으로 명칭한 것은 건물 내 존재하는 자신의 내적 위상을 투영하고자 하는 조선시대 선비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문헌자료를 통해 본 정약용의 건축적 견해¹⁴¹⁾*

내용	수록내용	
위치 선정	지역을 선택할 때는 모름지기 아름다운 산수(山水)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강을 낀 산은 시냇물을 낀 산만 못하며, 마을 입구에는 높은 암벽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눈이 시원하게 확 트인 곳이어야 비로소 복지(福地)인 것이다.	擇地須得佳山麗水 °然江山不如溪山，洞門須有峻壁側石，稍入開朗悅眼，方是福地 °
방위	나침반을 가지고 좌향(坐向)을 정남향으로 정하고 아주 정교(精巧)하게 지은 다음,	正子午盤針，匠治須極精巧

141)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권14,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방 꾸미기	<p>순창(淳昌)의 설화지(雪華紙)로 도배를 하고, 문미(門楣 문 위에 가로 댄 나무)에는 담묵(澹墨)으로 그린 산수화(山水畫)의 가로 그린 그림을 붙이고 문 곁에는 고목(槁木)과 죽석(竹石)을 그리거나 시를 쓰기도 한다. 방 안에는 서가(書架) 두 개를 놓고서, 1천 3~4백 권의 책을 꽂되 《주역집해(周易集解)》·《모시소(毛詩疏)》·《삼례원위(三禮源委)》와 고서(古書)·명화(名畫)·산경(山經)·지지(地志), 그리고 성력(星曆)의 법칙, 의약(醫藥)의 설명, 진련(陣鍊 진법과 혼련)의 제도, 군자(軍資 군수 물자)의 법칙과 초목(草木)·금어(禽魚)의 계보(系譜), 농정(農政)·수리(水利)의 학설이라든가 기보(碁譜)·금보(琴譜) 등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게 한다.</p>	<p>用淳昌雪華紙塗飾，楣上傳澹墨山水橫圖，門旁畫槁木竹石，或題小詩。室中置書架二部，插架書一千三四百卷，《周易集解》·《毛詩疏》·《三禮源委》，及古書·名畫·山經·地志·星曆之法·醫藥之詮·陳練之制·軍資之式，及草木禽魚之譜·農政水利之說，以至碁譜·琴譜之等，無所不具。</p>
가구 배치	<p>책상 위에는 《논어(論語)》 1권을 펴놓고, 곁에는 화梨목(花梨木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나무)으로 만든 탁자를 두고서, 도잠(陶潛)·사영운(謝靈運)·두보(杜甫)·한유(韓愈)·소식(蘇軾)·육기(陸機)의 시와 중국의 악부(樂府), 그리고 열조(列朝)의 시집(詩集) 등 몇 질(帙)을 올려놓고, 책상 밑에는 구리로 만든 향로(香爐) 한 개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옥유향(玉麝香) 한 일씩을 피우며, 뜰 앞에는 향장(響牆 가림벽) 한 겹을 쌓되 높이는 두세 자가 되게 한다.</p>	<p>案上展《論語》一卷，旁有花梨几子，安陶·謝·詩·杜·韓·蘇·陸之詩，及《中州樂府》·《列朝詩集》等數帙，案底置烏銅香爐一口，曉暮燒玉麝香一瓣，庭前起響牆一帶，高可數尺。牆內安百種花盆，若石榴·卮子·曇陀之等，各具品格，而菊最備，須有四十八般名色，方是僅具也。</p>

* 출처 :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초당(草堂)에 대해 또 하나 살펴 볼 측면은 초암(草庵)과의 비교이다. 초당과 초암은 ‘지푸라기 지붕을 얹은 ~’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갖지만 당(堂)과 암(庵)의 차이를 통해 구분되어진다. 주거를 합목적 근거로 사용한 것은 당(堂)에 더 가깝고 종교적 역할 등과 같은 특수성을 위한 공간 활용은 암(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차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초의 선사의 일지암과 일본 초암다실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초암다실의 원류는 조선전기 김시습의 차문화 공간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한반도의 암자나 민가가 모형이라는 견해가 있다. 후자는 이사카와 노리타카

(1884~1964)가 주장한 내용으로 그는 일본 다실의 구조가 조선의 남쪽인 전라남도의 민가나 암자와 가장 많이 닮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통나무 기둥, 흙벽, 나뭇가지로 짠 창문, 풀로 이은 지붕 등의 외형에 대해 논했다. 특히 한국의 초당은 기둥으로 소나무를 사용했는데 일본의 초암다실에도 그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일본의 기후적 재료의 특성상 삼나무나 노송나무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센리큐의 다실 기둥에 소나무가 사용된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였다.¹⁴²⁾ 이처럼 초당이라는 차문화 공간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정약용이 다산초당을 당(堂)으로 지칭하기 이전에 옥(屋)으로 지칭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다산시문집> 권5에 따르면 다산서옥(茶山書屋)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三月十六日游尹文舉(魯奎) 茶山書屋

삼월십육일 윤문거(노규)의 다산서옥에서 놀았는데

公潤調息在此

공윤도 병을 치료하며 거기에 있었다.

因仍信宿遂踰旬日

그리저리 하다보니 드디어 열흘이 넘게 그곳에서 묵고 있었고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일생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漸有終焉之志 聊述二篇示公潤

그리하여 이 두 수를 읊어 공윤에게 보였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기술한 정약용은 다산서옥에 머물러 본 심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42) 육치권, 초암다실의 평면변화에 따른 공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51-54.

寂歷林中屋 적막한 숲 속의 집이요
 琮琤枕下泉 쫄쫄거리는 베개 아래 샘이어라
 已經三兩日 이틀 사흘을 지나고 났더니
 聽慣不妨眠 귀에 익어 잠자는 데 방해가 안 된다네¹⁴³⁾

정약용이 다산초당에 처음 방문하여 며칠을 지내본 후 이곳에 지내고 싶은 마음을 윤단의 아들 윤규로에게 알렸다.¹⁴⁴⁾ 이후 윤단과 윤규로의 도움으로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아직 다산초당에 기거하지 않았던 때로 그곳에 며칠 머물러 본 소회를 적는 과정에서 다산서옥(茶山書屋)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다산초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다산초당이라는 명칭이 확고해진 것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쓴 다산초당의 현판 글씨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1957년에 다산초당을 중수(重修)하면서 추사의 글씨를 집자(集子)하여 판각한 것이다.¹⁴⁵⁾ 결국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되었을 건축물이 하나의 통일된 명칭인 다산초당으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직접 지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황상유인첩에 제함(題黃裳幽人帖)>에 설명된 내용처럼 거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견해로 주변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산초당에 대한 지칭으로 유서(幽棲), 초당(草堂), 서옥(書屋) 등이 거론되었고 이는 다산초당이 독립건물로서 다옥(茶屋)의 하나인 차문화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산초당에 관련된 건축적 요소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현대의 주거는 본인이 기거하는 공간을 스스로 조영하기는 대체로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공간을 통제하고 조율하고 새롭게 재배열하는 과정을

143)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다산시문집>권5, 한국고전번역원, www.itkc.or.kr.

144) 류진경, 앞의 논문, p.110.

145) 석한남,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 시루, 2018, P.111.

거쳐야 한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인 다산초당에서 자연 환경적 배경에 의한 영향을 받아 발생한 건축적 요소를 통해 미적 경험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관조, 완만, 순수, 유연, 탈긴장, 질박, 소박, 온화, 합리적, 절제의 미의 미적 범주가 다산초당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적 특성을 종합하는 미적 명제를 ‘공(空)’으로 볼 수 있다. ‘공(空)’은 차문화 공간의 범위에서 실존하는 가치체계적 외형을 의미한다.

2. 인문 사상과 철학적 요소로 본 ‘인(人)’

다산초당을 비롯한 정약용의 18년 동안의 유배를 통해 사유했던 철학 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차문화 공간과 철학적 요소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다산초당에 머무를 무렵에 발생한 그의 철학사상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의 유배생활 동안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였으며 유교경전을 실학적 입장에서 고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이행하였다.¹⁴⁶⁾ 그가 처음부터 다산초당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1801년 신유사옥으로 2월 28일 경북 포항에서 처음 유배를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강진에 처음 왔을 때 유배를 온 그를 모두 두려워했으나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은 주막집 노파였다. 주막집 노파가 마련해 준 곳에서 1805년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머물렀고 1810년이 되어서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후 해배되기 전 1818년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정약용은 주막집 노파가 마련해 준 방의 당호를 사의재(四宜齋)라고 하여

146) 류진경, 앞의 논문, p.74.

네 가지를 마땅히 행해야 하는 장소라고 명명했다. 이는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13 <사의재기(四宜齋記)>에 나타나 있다.

“사의재(四宜齋)라는 것은 내가 강진(康津)에 귀양 가 살 때 거처하던 집이다. 생각은 마땅히 담백해야 하니 담백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맑게 해야 하고, 외모는 마땅히 장엄해야 하니 장엄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단정히 해야 하고,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하니 적지 않은 바가 있으면 빨리 그쳐야 하고, 움직임은 마땅히 무거워야 하니 무겁지 않음이 있으면 빨리 더디게 해야 한다. 이에 그 방에 이름을 붙여 ‘사의재(四宜齋)’라고 한다. 마땅하다[宜]는 것은 의롭다[義]는 것이니, 의로 제어함을 이른다. 연령이 많아 짐을 생각할 때 뜻한 바 학업이 무너져 버린 것이 슬퍼진다.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랄 뿐이다.” 147)

그는 학문 연마의 의미인 재(齋)를 통해 해당 공간에 수신(修身)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한 정약용 자신의 철학적 면모가 부각되는 점이다. 사의재(四宜齋)는 사의담(思宜澹), 모의장(貌宜莊), 언의인(言宜訥), 동의중(動宜重)으로 이이의 구용구사(九容九事)를 종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이이에서 이익으로 이어진 실학사상을 잇고 있었기 때문에 이이의 사단칠정의 시각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세한 견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이는 『율곡전서(栗谷全書)』 <답성호원(答成浩原)>에서 이(理)인 사단과 기(氣)인 칠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사단의 의지를 어겼더라도 이것이 그릇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통제하면 끝내는 도심(道心)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수신하는 자세에 대해 강조하였다.¹⁴⁸⁾ 정약용은 이를 포함하되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47) 『다산시문집』 제13권, 기(記) <사의재기(四宜齋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四宜齋者，余康津謫居之室也。°思宜澹，其有不澹，尙亟澄之。°貌宜莊，其有不莊，尙亟凝之。°言宜訥，其有不訥，尙亟止之。°動宜重，其有不重，尙亟遲之。°於是乎名其室曰四宜之齋。°宜也者，義也，義以制之也。°念年齡之邁邁，悼志業之頽廢，冀以自省也。

148) 강신주, 앞의 책, pp.1124-1125.

그는 『맹자요의(孟子要義)』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의 이(理)에 귀속된다고 언급했고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에서는 기(氣)가 드러나야 이(理)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체인 기(氣)가 속성인 이(理)보다 앞서 있어서 더 귀중하게 본 것이다.¹⁴⁹⁾ 이는 사단을 실천하는 자세를 구용과 구사로 분리하려는 의미가 불필요함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우르는 명목으로 사의재를 구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은 차문화 공간인 사의재에 나타난 구용구사를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단의 실천을 함축하려 했던 정약용의 철학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3> 차문화 공간 사의재에 나타난 구용구사 *

구분	사의재			
	사의성(思宜譴)	모의장(貌宜莊)	언의신(言宜訊)	동의중(動宜重)
	사고	용모	언어	행동
구용 (九容)	-	목용단(目容端) 구용지(口容止) 두용직(頭容直) 색용장(色容莊)	성용정(聲容靜)	족용중(足容重) 수용공(手容恭) 기용숙(氣容肅) 입용덕(立容德)
구사 (九思)	시사명(視思明) 청사총(聽思總) 분사난(忿思難) 견득사의(見得思義)	색사온(色思溫) 모사공(貌思恭)	언사충(言思忠)	사사경(事思敬) 의사문(疑思問)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149) 강신주, 앞의 책, pp.1186-1189.

사의제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제자를 양성하며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신의 자세도 늦추지 않았다. 이후 다산초당으로 거취를 옮긴 후의 유배기간에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다작이 가능할 수 있는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다.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흙흙신서(欽欽新書)』 등이 이 기간 동안 대표되는 저술이다.

정약용의 강진 유배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다산학단의 구성과 명단은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읍중제자와 초당제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읍중제자는 사의제 시절 아전집 6명을 말한다. 정약용은 “읍내 사람들을 어찌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날 수 있겠는가. 이에 다신계절목 끝에 또 읍내 사람 6명을 기록하여 훗날의 징표로 삼으려 한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애뜻함을 적고 있다.¹⁵⁰⁾ 이에 속하는 6명은 강진읍성 제생좌목이라 하여 손병조, 황상, 황취, 황지초, 이청, 김재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당제자는 이유회, 이강희, 정학가, 정학포, 윤종문, 윤종영, 정수철, 이기록, 윤종기, 윤종벽, 윤자동, 윤아동, 윤종심, 윤종두, 이택규, 이덕운, 윤종삼, 윤종진 등의 18명으로 이들을 다산의 18제자로 부른다.¹⁵¹⁾ 정약용이 아꼈던 황상은 다산의 18제자에는 속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황상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으나 사회적으로 신분의 제약이 존재했다. 비록 초당제자로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황상은 일속산방(一粟山房)에서 평생 학문에 정진함으로써 신분상이 아닌 학문으로써 선비의 면모를 갖추었다.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은 정약용에게 1808년부터 1818년 8월 30일까지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과 신의를 다진 내용으로 약조를 통해 추후에도 교류를 유지하려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해배된 이후에도 그들

150) 한지연, 다산 정약용의 차 실용론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p.38-40.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 邑人何可望也 茲於茶信契憲之末 又錄邑人 六員 以爲徵後之文

151) 송재소 외, 앞의 책, p.84.

과의 지속적인 결의를 다지려고 했던 것이다. 유배기간 동안의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한 제자들과 더불어 교육과 저술에 힘쓰는 동안 차를 마시고 시를 읊는 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약용 자신이 더욱 굳건해 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이 다산철학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정약용의 인문 사상적 배경은 유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차문화 공간인 다산초당과 앞서 기거한 사의재에서 수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제자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수신, 중용, 겸양, 순백, 청아, 풍류적인 미적 범주가 발달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인문 사상적 배경과 철학적 요소를 분석한 미적 범주를 종합한 미적 명제를 ‘인(人)’으로 도출하게 된다. ‘인(人)’은 차문화 공간의 범위에서 실존하는 가치체계적 사유를 의미한다.

3. 사회 문화와 관계적 요소로 본 ‘기(氣)’

다산초당에서 발생한 관계적 요소에 관한 접화의 두 가지 모습으로 첫째, 차를 제작하는 구증구포(九蒸九曝)에 대한 내용과 둘째, 하피첩(霞帔帖)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구증구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강한 성질의 한약재의 약성을 알맞게 발휘시키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이것을 차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예를 찾기 어렵다. 구증구포에 대한 언급은 <범석호의 병오서회 10수를 차운하여 송옹에게 부치다(次韻范石湖丙午書懷十首簡寄淞翁)> 5구에 언급되고 있다.

洩過茶經九蒸曝 지나침을 털려고 차는 구증구포를 거치고

이는 지나치게 강한 차의 성질을 줄이기 위해 구증구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다에 관해 구증구포 외에도 삼증삼曬(三蒸三曬)라는 표현도 있는데 동일한 맥락으로 세 번 찌고 세 번 햇볕에 말린다는 뜻이다. 2005년 7월 30일 강진군이 개최한 <다산정약용선생유물특별전>에 출품된 편지 한 통에는 삼증삼曬의 떡차 제다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¹⁵²⁾ 이는 기존의 제작방법과 다르지 않으나 세 번이라는 횟수를 거론한 것이 특별하다고 보는 것이다. 떡차 제다법은 원래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약용의 제다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육우(733~804)의 『다경(茶經)』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표 13).

<표 14> 육우의 떡차 제다법과 정약용의 떡차 제다법의 비교 *

과정	육우의 떡차 제다법 ¹⁵³⁾	정약용의 떡차 제다법 ¹⁵⁴⁾
채엽	찾잎을 따다 : 채(採)	찾잎을 따다
살청	찜다 : 증(蒸)	세 번 찌서 세 번 볶에 말린다 (三蒸三曬)
	짚는다 : 도(搗)	아주 가늘게 빻는다
	-	돌샘물로 반죽한다
	-	진흙처럼 완전히 뭉크리지게 짚는다
성형	모양을 만든다 : 박(拍)	작은 떡으로 만든다
건조	말린다 : 배(焙)	-
보관	퀘미에 꿰다 : 천(穿)	-
	저장한다 : 봉(封)	-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152) 정민(a), 앞의 책, pp.121-129.

중국의 청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떡차 제다법이 아닌 산차를 생산해 냈으나 조선은 여전히 떡차 방식으로 차를 생산하였다. 이를 우리만의 특징으로 변화시켜 정약용이 정립하였던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찌는 횃수에 대한 언급과 찼고 나서 모양을 성형하기까지이다. 육우는 『다경(茶經)』의 <이지구(二之具)>, <삼지조(三之造)>에서 떡차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찻잎을 찌고 나서 절구에 넣고 찼은 후 틀에 박아 모양을 만들어 배로를 통해 말린 다음 덩이에 구멍을 뚫어 껴미에 꿰 다음 저장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였지만 찌는 횃수를 거론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여러 번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증정한 후에는 찻잎의 고가 유실될 염려가 있어 작업 후 찻잎을 고루 펼쳐지도록 했다고 했을 뿐 이를 별에 말리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정약용은 육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차를 세 번 찌고 세 번 햇볕에 말린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구증구포와 같은 원리로 숫자가 의미하는 것보다 증정을 여러 번 진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찼 찻잎을 바로 찼었던 육우와는 달리 1차 건조를 한 후에 말린 잎을 가늘게 뺐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육우는 <오지자(五之煮)>에서 제다 공정 시 여린 찻잎을 찌서 뜨거울 때 찼으면 잎은 문드러지지만 싹과 순은 그대로 있다고 했다.¹⁵³⁾ 이는 <삼지조(三之造)>에서 찻잎을 고루 펼쳐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나, 찻잎을 찼을 때 세심히 신경 쓰지 않으면 싹과 순이 잘 찼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즉 물기가 있는 찻잎, 특히 싹과 순을 찼기에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 정약용의 ‘포(曬)’의 제다 방식처럼 건조된 잎은 이러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이후 세밀하게 가루가 된 찻잎은 육우의 제다법과

153) 장유화, 다경, 삼녕당, 2013, p.104.

154) 정민(a), 앞의 책, p.122.

155) 장유화, 앞의 책, p.195. '基始, 若茶之至嫩者, 蒸罷熱搗, 葉爛而牙筍存焉.'

달리 축축하게 점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반죽을 위해 돌샘물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육우의 제다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육우는 <칠지사(七之事)>에서 장읍의 『광아(廣雅)』에 나온 노쇄한 찻잎으로 차를 만들 때는 점성이 약해 잘 뭉쳐지지 않으니 걸쭉한 쌀미음을 쭈어 빚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하였다.¹⁵⁶⁾ 이것은 찻잎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찻잎 외에는 혼합물이 없어야 한다는 육우의 견해와는 소소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이 돌샘물로 찻잎가루를 반죽한 것은 별도의 혼합물 없이 찻잎 자체로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반죽한 것을 다시 진흙처럼 짓이겨서 찜은 다음 이를 작은 떡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의 공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음은 아쉽긴 하나 육우의 다경을 이해했던 정약용이 다경의 방식대로 진행할 시 제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실천적 방식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창작하는 정약용의 독창적인 접화의 성격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예는 하피첩(霞帔帖)이다. 유배생활을 시작한 지 몇 해 후에 부인 홍씨는 시집을 때 입었던 붉은 치마가 빛바랜 노을 색으로 변한 것을 정약용에게 보냈다. 이 치마로 그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글을 적어 하피첩으로 재창조를 해냈다.¹⁵⁷⁾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강진(康津)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적에 병이 든 아내가 흰 치마 다섯 폭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시집을 적에 가져온 훈염(纁襖 시집갈 때 입는 활옷)으로서 붉은빛이 담황색으로 바래서 서본(書本)으로 쓰기에 알맞았다. 이리하여 이를 재단, 조그만 첩(帖)을 만들어 손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전해 준다. 다음 날에 이 글을 보고 감회를 일으켜 두 아버지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몽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하피첩(霞帔帖)’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곧 홍군(紅裙)의 전용된 말이다.”¹⁵⁸⁾

156) 장유화, 앞의 책, p.252. ‘『廣雅』 云 …(중략)…… 葉老者, 餅成, 以米膏出之.

157) 석한남, 앞의 책, p.128.

정약용은 아내가 보낸 치마를 받아 1810년에 <하피첩서>를 쓴 후 약 3년 뒤에는 남아있는 치마 천에 매조도를 그리고 시를 적어 시집간 딸에게 보냈다. 이것은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빛이 바래져서 입을 수 없게 된 치마가 의미 있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된 것이다.¹⁵⁹⁾ 이러한 일화를 통해 정약용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표현된 접화의 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의 유배생활에서는 조화의 미도 발견할 수 있다. 『다산시문집』 권 14 <혜장의 병풍에 쓴다(題藏上人屏風)>를 통해 다산초당에서의 그의 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조선시대 선비의 취미(趣味)활동의 오감적 조화의 방식처럼 정약용의 취미활동 영역을 <표 14>로 정리해보았다.

정약용은 차문화 공간 내 취미생활의 조화를 통해 힘든 유배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앞서 분석한 접화의 미와 함께 균형과 조화, 해학, 멋, 유희의 미적 범주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적 요소를 분석한 미적 범주를 종합한 미적 명제는 ‘기(氣)’로 집약된다. ‘기(氣)’는 차문화 공간의 범위에서 실존하는 가치체계적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158) 『다산시문집』 제14권 <하피첩에 제함(題霞帔帖)>,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余在康津謫中 病妻寄敝裙五幅 蓋其嫁時之繡裙 紅已浣而黃亦淡 政中書本 遂剪裁爲小帖 隨手作戒語 以遺二子 庶幾異日覽書興懷 挹二親之芳澤 不能不油然而感發也 名之曰 霞帔帖 是乃紅幫之轉(言+(隱-β))也 嘉慶庚午首秋 書于茶山東菴.

159) 정민(b), 앞의 책, pp.230-235.

<표 15> 다산초당 내 취미활동의 오감적 조화 *

활 동	수록된 내용 ¹⁶⁰⁾	오감				
		시 각	청 각	후 각	미 각	촉 각
조망하기	달이 밝으면 연못이 맑고 달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둡다. 밝으면 그림자가 비치고 어두우면 없어져서 저절로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	●	●		●
거문고 타기	대피리 불고 거문고 타며	●	●			●
글쓰기 · 그림 그리기	시 읊고 그림 그리는 것이 방탕한 듯하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엄숙한 듯하면서도 엄숙하지 않으니 어찌 담박한 삶이 아니겠는가.	●	●	●		●
원예하기	꽃을 모종하고 채소를 심으며 대나무를 뿤아내고 찻잎을 뒤는 것이 한가한 듯하면서도 한가롭지 않고 바쁜 듯하면서도 바쁘지 않으니 참으로 이것이 청량한 세계이다.	●	●	●		●
향 피우기	비가 갠 날 창가의 책상에서는 독누향을 피우고	●		●		
차 마시기	소룡단 차에 뜨거운 물 부어 우려 마시며	●	●	●	●	●
책 읽기	미공 진계유의 『복수전서』 읽기를 좋아한다	●	●	●		●
담배 피우기	눈이 살짝 내린 대나무로 에워싼 암자에서는 오각건을 쓰고 담뱃대를 물고서	●		●	●	●

* 출처 : 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다산초당은 정약용의 생애에 있어 미학의 가치가 담긴 차문화 공간이었다. 그 곳은 유배라는 외적 고립의 특수 환경으로 그의 학문이 두텁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미학의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의 실제 사례로 다산초당에 존재하는 미적 배경인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를 통해 건축적, 철학적, 관계적인 미적 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건축적 요소로는 다산초당의 원림조경과 건축적 견해, 차문화

160) 송재소, 앞의 책, pp.68-69.

공간의 명칭으로 사용했던 용어 분석, 독립건물의 공간인 다옥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였다. 철학적 요소로는 수신을 위한 실천 의미로 사용한 사의재, 다신계절목의 교류를 통한 다산철학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관계적 요소로는 떡차 제다법과 하피첩의 재창조를 통한 접화, 차문화 공간 내 취미 활동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문화 공간의 미적 특성 분석을 통해 가치체계인 외형, 사유, 존재방식으로 해석되는 공(空)·인(人)·기(氣)라는 미적 명제를 도출하여 공(空)-외형, 인(人)-사유, 기(氣)-존재방식이라는 가치체계적 형식을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는 한국 미학의 대표적 명제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는 미의 의도성을 심상과 연결한 것이다. 즉 예술적 표현에 앞서 내재해야 하는 한국인의 마음가짐을 정의한 것으로 검소함과 누추함,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의 관계는 상대적 개념이기에 조율의 근원은 바로 한국인의 미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미의식은 과거 한민족이 지속적으로 살아온 영토 안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 분리와 화합을 거듭하는 동안 발전해 왔으며 작금의 미 또한 화합하여 한국미의 지표가 된다.

미학의 관점에서 차문화 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점층적으로 접근하여 분석을 이행하였다. 서양에서 처음 시작된 학문인만큼 서양의 진·선·미의 가치체계에 따른 사유형식과 연결하여 서양 미학을 분석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미학을 종합하여 도출한 6가지 미적 범주 즉 순수미, 특성미, 비극미, 희극미, 우아미, 숭고미를 정리했다. 진(眞)의 가치는 이성적 주체, 사고의 주관을 통해 탐구적, 정신적 미적 요소로 나타나며 순수미, 특성미가 이에 해당한다. 선(善)의 가치는 의지적 주체, 행동의 주관을 바탕으로 윤리적, 실천적 미적 요소에 의해 비극미, 희극미가 나타난다. 미(美)는 감성적 주체, 심성의 주관으로 총체적, 내면적인 미적 요소가 나타나며 우아미, 숭고미가 이에 속한다. 결국 서양의 진·선·미 가치체계는 정신적-탐구적, 윤리적-실천적, 총체적-내면적이라는 미적 요소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진·선·미를 서양 미학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동양에서 미는 아름다움의 이상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는 불·유·도의 가치체계를 통해 이해하였다. 불·유·도의 사상은 서양 미학의 진·선·미의 개별적 성격보다는 해당 유파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게 강조점이 달라졌

다. 불가 미학은 본연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동안 본질의 정신적 의미에 집중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였다. 이는 자연 환경적 배경에 의거해 볼 때 서양 미학의 미적 요소인 탐구적, 정신적과 관계하며 이로써 진(眞)과 연결할 수 있다. 유가 미학의 미적 배경은 인문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 실천적인 미적 요소가 적용되며 서양 미학의 선(善)으로 대입이 가능하였다. 도가 미학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성을 통해 형성된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발생하며 총체적이고 내면적인 미적 요소가 특징으로 이는 서양 미학의 미(美)와 함께 한다. 이로써 동양의 가치체계로 불·유·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양 미학의 진·선·미와 연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의한 심리적 현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 미학 또한 서양 미학과 동양 미학과 같이 가치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미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미적 배경에는 자연 환경, 인문 사상, 사회 문화가 있다. 자연 환경의 인자로는 지형·재료·기후를, 인문 사상의 인자로는 인본주의·선비사상을, 사회 문화의 인자로는 집화·조화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한국 미학의 배경을 통해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분석한 결과는 첫째, 자연 환경의 미적 배경에 의해 건축적 요소를 규명하여 지형에 따르는 지붕의 형태, 재료로는 돌과 나무의 활용, 기후로는 창호의 개폐여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차문화 공간에서 독립건물로의 공간인 다옥, 합목적성에 의한 공간인 다실, 일상영역 내 공용공간으로 분석해냈으며 이러한 미적 특성을 종합하여 ‘공(空)’의 미적 명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인문 사상의 미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철학적 요소로 사단, 선비사상의 명창정계와 교유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이를 ‘인(人)’이라는 미적 명제로 설명했다. 셋째, 사회 문화의 미적 배경을 통해 관계적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자주적 집화, 취미활동의 오감적 조화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고 이는 미적

명제 ‘기(氣)’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미적 명제의 내용을 정약용의 다산초당을 통해 재검증하는 과정을 이행하였다. 차문화 공간으로서 다산초당의 미적 명제는 원림조경과 건축적 견해·차문화 공간의 명칭으로 사용했던 용어 분석·독립건물로의 공간인 다옥을 통한 건축적 요소, 사의재와 다신계절목을 통한 철학적 요소, 접화와 조화를 통한 관계적 요소를 통해 심화된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서양 미학의 가치체계인 진·선·미, 동양 미학의 가치체계인 불·유·도에서와 같이 한국 미학의 일 분야인 차문화 공간 미학의 가치체계에 함축된 미적 명제로 공(空)·인(人)·기(氣)를 결론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로써 공(空)-외형, 인(人)-사유, 기(氣)-존재방식이라는 가치체계적 형식을 제시하였다.

한국 미학이라는 학문은 널리 통용되어 온 분야는 아니다. 이는 국내대학 안에 미학이라는 학과의 개체수가 반증하고 있다. 미학이라는 학문은 도입 단계부터 한국의 미에 대한 실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특히나 추상적인 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학에서 미는 단순히 미추(美醜)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문화예술 활동 안에 감성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심상을 아울러야만 하는 매우 복잡 미묘한 분야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학이 제대로 자리 매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한국미에 대한 편견이나 국수적 사념으로 치우칠 경향도 염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미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노력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차분야에 대한 미학, 즉 차미학 자체도 논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세부 항목인 차문화 공간의 미학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울러 충분한 사료를 바탕으로 명증(明證)하지 못한 점, 일부 문헌 및 회화자료에 의지해 논의를 전개한 연구의 한계점도 갖고 있

다. 그러나 한국 미학에서 분과하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영역을 통해 개별화된 한국만의 미적 범주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배경과 요소를 도출해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미학을 종합하는데 필요한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음악, 문학 등 한국인의 미 또는 예술적 개념이 적용된 분야들과 함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차문화 공간의 미학이라는 시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그를 표본으로 분석한 후,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미학의 역할 가운데 미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전달이 갖는 기능을 통해 전통문화의 하나인 한국 차문화 전승의 제반여건 마련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대석, 미학의 기초와 그 이론의 변천, 서광사, 2013.
- 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7.
- 권영필 외, 한국의 美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15.
- 권효숙,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
- 고유섭, 구수한 큰맛, 다할미디어, 2010.
- 김부식, 삼국사기, 동서문화사, 2016.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17.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14.
-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사사키 켄이치, 미학사전, 동문선, 2002.
- 석한남,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 시루, 2018.
- 송재소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 2, 돌베개, 2011.
- 서유구 저, 안대회 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18.
- 야나기 무네요시, 다도와 일본의 미, 도서출판 소화, 2010.
- 유홍준, 안목, 눌와, 2017.
-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 열화당, 2009.
- 이주영, 미학특강, 미술문화, 2011.
-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 임석재, 한국건축과 도덕 정신, 새문사, 2016.
-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2015.

- 정민(a),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김영사, 2015.
- 정민(b), 미쳐야 미친다. 푸른역사, 2013.
- 정약용 저, 정해림 역,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 조민환, 중국철학과 예술정신, 예문서원, 1997.
- 주남철, 한국 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지상현, 한중일의 미의식, 아트북스, 2015.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1, 휴머니스트, 2004.
- 짱유화, 다경, 삼녕당, 2013
- 최광진, 한국 미학, 미술문화, 2015.
- W.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2017.

<학위논문>

- 김건우,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경숙,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아롱, 고산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五友歌)를 중심으로 한 선비정신 장신구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완주, 차문화가 동아이사인의 공예문화관 및 조형성에 끼친 영향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노은주, 현대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향미, 조선후기 실학파의 차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류진경, 茶山과 秋史의 流配地 茶生活의 治癒 效果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박혜란,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송지숙, 동서양의 정원문화를 통해 본 차문화 공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다예, 한국인의 전통생활 속에서 나타난 백색 선호의식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신미란, 朝鮮後期 책거리그림과 器物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혜현, 조선 초기 문인의 차생활 정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연태경, 관계성 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 특성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동훈,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차의 약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유선순, 동양사상에 나타난 환경관,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 증, 동양미학적 조형 관념으로 본 상하이 엑스포 공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육선자, 한국 음차공간의 역사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육치권, 초암다실의 평면변화에 따른 공간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지은, 조선시대 선비주택의 사랑채 거주환경의 구성요소와 생활공간의 복원 가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경희, 한국 차문화 전승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길호, 장자미학을 통한 일상적 공간미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나연, 조선시대 회화의 서안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승희, 전통조경공간에 나타나는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은경, 차문화 공간의 현대적 적용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은정, 조선후기 다화를 통해 본 차생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용석, 일상과 비일상의 측면에서 본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인숙,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정아, 김홍도·이인문의 작품을 통해 본 조선후기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정옥,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본 차문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주영, 현대 차문화 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혜미, 조지훈 시에 나타난 선(線)의 미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2014.
- 임성원, 한국미학의 정초를 위한 예비적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장나이치엔, 중국 불교 석굴 조각의 미학적 함의와 그 인격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수미, 공간개념 변화 분석을 통한 공간디자인 방향성 고찰, 숭실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슬기, ‘羊’ 部字의 儒家美學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재숙, 韓國茶文化의 美學的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영호,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 사상으로 본 공간조형개념 비교 연구, 국민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진영, 한재 이목의 차정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진영, 동다의식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유리, 자연관이 별서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9.
- 최인애, 다산 정약용의 자연관이 원림조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한지연, 다산 정약용의 차 실용론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4,
- 함현준, 佛敎의 美觀 研究 : 石佛寺 本尊佛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학회지>

- 강관식, 조선후기 '民畵'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小考, 미술자료, 66, 2001, pp.79-96.
- 김강녕, 제4장 유학사상의 유래와 변천, 민족사상, 3(2), 2009, pp.125-165.
- 노재현·신상섭·박을진, 「다산도(茶山圖)」에 표현된 다산초당의 원형경관 탐색,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2), 2008, pp.31-41.
- 손정희, 19세기 博物學的 趣向과 繪畵의 새로운 경향, 한국문화, 44, 2008, pp.49-73.
-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조선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 연구, 38, 2010, pp.295-329.
- 신운용, 최치원 사상의 종착점과 '풍류'의 발현, 선도문화, 14, 2013, pp.177-217.

<기타>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홍순민, 건물들의 지위: '전당합각재헌루정', 한국역사연구회, 2007, <http://www.koreanhistory.org/>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 간송미술관, <http://kansong.org/>
- 리움 삼성미술관,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
- 한양대학교 박물관, <https://museumuf.hanyang.ac.kr/>

ABSTRACT

A Study on the Space for Tea Culture from the Aesthetical Viewpoint

– focused on Dasan Chodang –

Song, Yeon-min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We try to find tradition or Korean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the present through the past and to look into the future. The assumption that history is repeated means that there is a certain cycle and a unique pattern in the ethnicity of a nation. This acknowledges the existence of cultural DNA accumulated in the ethnic group through the flow of history. It is the aesthetics of Koreans that appears from the existence of homogeneous emotion of the beauty while they have been living in the same place geographically. Various thoughts have been developed while Korean people separated and harmonized over and over with the flow of the times in the territory they have lived constantly, and the aesthetic sense has also progressed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However, there is also a limitation that there have been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Korean beauty,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people were demanded of forced change and the desire for curiosity about and convenience of the Western culture cut off a part of the aesthetic flow as it passed through modern times. It is time for us, who live through the present time, to establish and discover the Korean beauty through past history and culture. Aesthetic sense becomes a pivot that enables us to continue our aesthetic flow even if other cultures are accepted. Aesthetic consciousness is a conscious system facing to the beauty in which the unconsciousness is conscientized, meaning that a selective reason for beauty occurs in unconsciousness. It is culture that develops through this kind of system. Culture is created through mind and matter, which occurs similarly in tea. In general, tea is called as a medium that discusses the mind through matter. The values of spiritual culture is formed through the materialist position through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ea, and the ideological phenomenon through the tea act(Chasa/茶事). Therefore, when we consider the tea culture as a synthesis of a series of phenomena that take place through the tea, the culture includes the spirit and matter that is dissolved, and triggers ignition as the realm of tea is added. In order for an act to take place, a condition must be given that the action can be taken, demanding a certain frame, that is, the space. The tea culture space is the space that synthesizes the tea acts.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aesthetics left in the minds of Koreans by analyzing the tea culture space in Joseon Dynasty from the aesthetical viewpoint, and developed aesthetical research which weaves into the academic system. It attempted to describe the abstract and individual beauty on the objective and universal ground within the national fence. It stressed that the aesthetical study of the tea culture space is one of the fields, which is necessary in drawing out Korean aesthetics, including all the areas where Korean beauty or artistic concepts such as architecture, painting, sculpture, crafts, music, and literature are applied. It is because the tea culture space is the field in which such elements as architecture, painting, sculpture, crafts, music, and literature are entangled organically centering around t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aesthetics as a science, the definition of aesthetics, and its current affairs and objectivity were described, explaining the concept of aesthetics. As it is a science started in the West, the research started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way of looking at beauty in Western aesthetics. Then, after grasping the perspective of beauty in Oriental aesthetics,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aesthetics was identifi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ach group was explained to be originated from the value system of truth, good and beauty in Western aesthetics and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in Oriental aesthetics by grasping the aesthetic categories

which is unique by group and the aesthetic background and element by human collective unconsciousness. It was found that the similarity of the viewpoint of beauty is a common psychological factor of human being, being applied to Korean aesthetics together with Western aesthetics and Oriental aesthetics.

Second, it was attempted to presen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tea culture space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study, aesthetic characteristics refers to aesthetic background, aesthetic element, and aesthetic category. The natural environment, human thought, and social culture were examined as an aesthetic background, and the architectural, philosophical, and relational factors were analyzed as aesthetic elements. First of all, the architectural element was categorized into the tea-house as independent building space, the tea-room as purposive space, and the public space in daily life by clarifying the range of the tea culture space. As for philosophical element, the humanistic thought and the contents of scholars who put it in practice were analyzed, and as for relational element, the process of cultural integration based on socio-cultural background was analyzed in terms of convergence and harmony. In addition to thi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ea culture space in Joseon Dynasty formed connection systems such as natural environment-architectural, humanistic thought-philosophical, and socio-cultural centering around Dasan Chodang as an aesthetic case of tea culture space, and Empty(空), person (人), and energy(气) as the aesthetic

proposition that synthesizes them.

The tea culture space of the Joseon Dynasty i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Korean aesthetic identity through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 starting from aesthetic sense of beauty accumulated to the Korean people. The study of the aesthetics of the tea culture space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Korean tea culture has exist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efforts to establish it as an academic system are to activate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functions of aesthetics. Also, we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various conditions for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 through the influence and suggestion that the car related records left to us. This study put significance on its role of basic data as foundation from which research results are drawn out by fields in establishing Korean aesthetics. The study on the aesthetics of tea culture space is expected to continued in the future.